

2023 청소년상담연구 · 244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책임연구자 | 차 주 환
공동연구자 | 이 자 영
편여울강
백 정 원
어 혜 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244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인 쇄 : 2023년 12월
발 행 : 2023년 12월

발 행 인 : 윤희식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36 / F. (051)662-3008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비매품

ISBN 978-89-8234-907-2 94330

ISBN 978-89-8234-001-7 (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간행사

올해 여성가족부는 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실태파악, 고립·은둔청소년 발굴·지원체계 마련, 은둔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청소년복지지원법령 개정, 청소년지원기관 등 은둔청소년 대상 서비스 지원체계 운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은둔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광역지자체 4곳을 선정하여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은둔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정착되고,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발굴 및 연계개입 등 좀 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이루어진 실태조사에 의하면, 은둔을 경험한 사람들 중 약 40%가 청소년기에 은둔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인기 은둔의 고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둔청소년의 정의를 비롯한 관련 연구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은둔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은둔청소년의 발굴과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 상담자가 은둔청소년을 판별할 수 있는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은둔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은둔청소년 및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은둔청소년을 개입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의 실태조사, 학계 및 청소년 유관기관 현장 전문가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은 청소년상담복지현장에서 만나는 은둔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들을 적절히 개입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추후에도 은둔청소년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해주신 청소년상담복지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한양사이버대학교 이자영 교수님과 본원 연구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 결과가 은둔청소년 관련 연구에서부터 상담복지 정책 수립 및 실제 개입에 밑거름이 되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희식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종사자가 청소년의 은둔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고, 은둔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은둔청소년 척도 개발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를 통해 기존에 개발된 척도를 분석하여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요인을 추출하고, 1차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계 전문가의 자문 및 평정을 통해 최종 예비문항을 추출하여 은둔(유경험)청소년 및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스크리닝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사회단절 및 고립, 회피, 불규칙한 생활방식), 13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문항별 0점에서 4점 범위)이며, 은둔청소년 판별기준으로 사용되는 하위요인별 절단점은 사회단절 및 고립이 11.5점, 회피가 13.5점, 불규칙한 생활방식은 5.5점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절단점 이상이 되었을 때 은둔청소년(고위험)으로 판별하였다. 이상에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서는 은둔청소년의 개념이나 특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종사자가 은둔청소년을 판별하기 위한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서 은둔청소년의 효과적인 발굴 및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은둔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상담개입을 진행하였거나 사업수행 경험이 청소년상담자 240명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의 은둔청소년 지원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자와 더불어 지자체에서 실제 은둔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공공부문 총 14명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은둔의 양상은 아동·청소년기부터 누적된 결과로 발생하는데 청소년의 경우 ‘학교’라는 공공시스템 안에서 관리, 보호받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은둔(위험)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인 학교·교육청과 청소년상담복지기관과의 촘촘한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은둔청소년을 누락하지 않고 조기에 발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은둔(위험)청소년을 조기발굴 및 효과적 개입을 위해서는 가족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외부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은둔청소년의 특성 상 대부분의

상담자는 처음부터 은둔청소년에게 직접적인 개입에는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은둔 청소년에게 개입을 할 때 청소년 당사자보다는 가족들에 대한 개입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은둔 가족에 대한 개입은 직접 수혜자인 은둔 가족의 안녕에 기여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은둔 종결에 간접적이지자 가장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은둔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은둔의 양상, 대인관계의 고립 정도, 은둔의 이유 및 은둔 이전 부정적 경험 등 은둔청소년에 따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복지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은둔청소년의 현재를 이해하고 이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둔청소년의 상황, 욕구에 맞는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실제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은둔청소년 지원 실패의 주된 이유로 희망 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한계를 꼽을 만큼, 은둔당사자와 가족에게 적시에 필요한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은둔청소년 개입의 핵심이자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은둔청소년의 주 사례관리기관으로써 거점기관이 필요하다. 은둔청소년은 은둔 기간, 정도, 유형 등에 따라 사례관리자상담자와 라포를 형성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어도 은둔을 종결하기까지 장기간의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은둔 종결 이후에도 사회에서 철수하여 은둔을 반복하기도 하는 은둔청소년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 사례기관의 사례관리자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현장에서 은둔청소년 및 가족과 대면하는 사례관리자전문상담자의 역량 향상과 소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은둔청소년이 은둔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은둔청소년과 가족에게 직접 개입하는 청소년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은둔이라는 고위기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소년 상담자가 심리적·신체적으로 소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간적·공간적 휴식 기회 제공 외에도 고용의 안정성 등 법적·윤리적 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둔청소년 관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인식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차원의 인식과 은둔사업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후조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예방차원에서의 인식개선은 은둔의 위험요소 예방 및 조기 개입인데, 은둔의 위험요소인 따돌림,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과 같은 사건을 겪은 청소년들을 조기에 개입하여 심리외상과 같은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후조치 차원으로 은둔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비난과 억압적인 사회분위기의 개선, 은둔에 대한 이해 및 은둔청소년·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은둔청소년을 둔 가족 중에는 친인척, 지인에게도

가족 구성원이 은둔 상태라는 것을 숨기거나, 은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상처를 받고, 전문기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각 유관기관의 역할과 같은 체계연구와 더불어 은둔청소년 유형별 개입 방안연구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은둔청소년을 개입하는데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어: 은둔청소년, 조기개입, 발굴 및 지원 방안

목차 |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과제 4

II. 이론적 배경 | 5

- 1. 은둔청소년의 이해 5
 - 가. 은둔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5
 - 나. 은둔청소년의 특성 6
 - 다. 은둔청소년의 발굴을 위한 스크리닝 척도 7
- 2. 은둔청소년의 지원 10
 - 가. 은둔청소년의 지원현황 10
 - 나. 은둔청소년의 지원체계 고찰 12

III. 연구방법 | 15

- 1. 현장 전문가 대상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개발 15
 - 가. 개발과정 15
 - 나. 연구대상 15
 - 다. 측정도구 16
 - 라. 자료분석 17
- 2.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17
 - 가. 개발과정 17
 - 나. 연구대상 18
 - 다. 분석방법 18

IV. 연구결과 | 19

- 1. 현장 전문가 대상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개발 19
 - 가. 1차 요인과 예비문항 개발 19
 - 나.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예비척도 구성 20
 - 다. 탐색적 요인분석 20

라. 확인적 요인분석	22
마. 타당도 분석	23
바. 은둔청소년 진단의 절단점 및 의미	24
2.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26
가. 현황 조사	26
나. 현장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52
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 포커스그룹 인터뷰	76
라.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 프로세스	94
V. 결론 및 논의	99
1.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개발 및 활용방안	99
2.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101
참고문헌	105
부록	109
Abstract	134

표목차 |

<표 1> 은둔형 외톨이 선별척도 리스트	8
<표 2> 은둔형 외톨이 선별척도의 구성요인	9
<표 3>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1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지수	23
<표 5> 집단별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평균과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	24
<표 6>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와 공인타당도 검증 척도 간 상관관계	24
<표 7>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하위요인별 절단점, 민감도, 특이도, Youden's J	25
<표 8> 현황조사 최종 문항	27
<표 9> 현황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8
<표 10> 은둔으로 정의할 수 있는 최소 기간	29
<표 11> 은둔청소년의 정의와 지원 방안에 대한 지식 수준	29
<표 12> 은둔청소년의 유형(중복 응답)	30
<표 13> 은둔청소년 대상 상담/개입 경험	30
<표 14> 은둔청소년 미경험 이유	31
<표 15> 상담/개입한 은둔청소년의 성별 및 인원(중복 응답)	31
<표 16> 상담/개입한 은둔청소년의 유형(중복 응답)	32
<표 17> 은둔청소년 종결 경험 유무 및 종결 이유	32
<표 18> 은둔청소년 상담/개입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이유	33
<표 19> 은둔청소년 상담/개입을 계획대로 종결하지 못한 이유	33
<표 20> 은둔의 계기(중복 응답)	34
<표 21> 청소년상담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목적(중복 응답)	35
<표 22>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중복 응답)	35
<표 23> 은둔 이전 경험(중복 응답)	36
<표 24> 평소 집에서의 생활(중복 응답)	36
<표 25> PC/모바일기기로 하는 활동(중복 응답)	37
<표 26> 은둔청소년의 은둔 시작 및 기관 방문 시점의 성별·연령(중복 응답)	38
<표 27> 재 은둔을 하게 된 계기	38
<표 28> 은둔 시작과 부모(보호자)가 은둔을 인지한 시점,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 상담/개입을 신청한 시점 간의 간격(중복 응답)	39
<표 29> 자녀의 은둔을 뒤늦게 인지한 이유	39
<표 30> 은둔청소년 부모가 호소하는 어려움	40

<표 31> 자녀를 돕기 위한 은둔청소년 부모의 노력(중복 응답)	41
<표 32> 은둔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42
<표 33> 은둔청소년을 만날 때 효과적인 방법	43
<표 34> 은둔청소년의 부모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43
<표 35> 은둔청소년 연계기관(중복 응답)	44
<표 36> 해당 기관으로 은둔청소년을 연계한 이유(중복 응답)	44
<표 37> 은둔청소년 발굴을 위해 필요한 노력_국가 및 지자체 차원	45
<표 38> 은둔청소년 발굴을 위해 필요한 노력_기관 차원	46
<표 39> 은둔청소년 발굴을 위해 필요한 노력_상담자 차원	47
<표 40> 은둔청소년 연계를 위해 필요한 노력_국가 및 지자체 차원	48
<표 41> 은둔청소년 연계를 위해 필요한 노력_기관 차원	49
<표 42> 은둔청소년 연계를 위해 필요한 노력_상담자 차원	49
<표 43> 은둔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중복 응답)	50
<표 44> 은둔청소년이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방법(중복 응답)	51
<표 45> 은둔청소년이 선호하는 서비스 동행자(중복 응답)	51
<표 46> 은둔청소년의 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중복 응답)	51
<표 47> 현장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정보	52
<표 48> 현장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53
<표 49>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FGI 결과 생성된 범주	54
<표 50>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FGI 참여자 정보	76
<표 51>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FGI 질문지	77
<표 52>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FGI 결과 생성된 범주	78

그림 목차 |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3
[그림 2]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ROC 곡선	25
[그림 3]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 프로세스	98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국내에 은둔형 외톨이 존재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2001년 정신건강의학과 여인중, 이시형,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강북삼성병원이 함께 은둔형 외톨이를 연구한 결과, 한국에도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은 상태의 은둔형 외톨이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 최초로 드러났다(여인중, 2005). 이 연구에서는 절반 이상의 은둔형 외톨이가 사춘기가 시작되는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고, 이들의 문제점으로는 우울 증상, 대인공포, 자기혐오, 퇴행, 공격성향 등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하였다.

은둔형 외톨이는 고립청년, 니트, 학교밖 청소년 등 유사한 용어와 혼재하며 사용되어 왔으나, 점차 유사 용어와의 차이점을 구별하면서 개념화하였다(김혜원 외, 2022). 선행 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개념화할 때 공통적인 특징은 은둔기간, 은둔상태, 사회적인 접촉범위를 포함한다. 여인중(2005)은 ‘친구 없이(혹은 하나) 3개월 이상 집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사회적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윤철경과 서보람(2020)은 6개월을 기준으로 ‘다양한 요인으로 취학, 취업 등의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6개월 이상 타인과의 교류를 단절한 사람’, ‘6개월 이상 집에서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에는(심지어 가족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김기현, 이운주, 유설희, 배진우(2017)는 은둔형 외톨이를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안에 머물러 있고, 진학이나 취업 등의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있으며,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자신의 은둔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는 청소년’으로 정의하면서,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등도 이상의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김혜원 등(2022)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일정기간(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동안,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집안에만 머무르며,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외출은 하더라도 가족 외 대인관계를 하지 않으며,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Wong 등(2015)에 따르면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은둔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은둔청소년의 정의를 내릴 때, 이들의 발굴 및 예방적 개입을 위해 ‘은둔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없으면서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집 안에만 머무르고,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는 9세에서 24세 연령의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타난 2005년 이후 20여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 국내에 이들의 현황을 살펴볼 만한 공식적인 통계는 부재하다. 다만 OECD 기준 우리나라의 15-29세 청소년의 니트 비중(18.9%)이 다른 국가의 평균(1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기현 외, 2018), 15-29세의 사회적 고립청년 비율은 2.7%로 약 29만명을 추정하고 있다(김기현 외, 2020). 또한 18-24세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발생률은 1.97%(윤철경 외, 2022), 은둔 유경험자 중에서 약 40%가 ‘청소년기’에 은둔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는(광주광역시, 2020) 수치를 통해 청소년기본법에 적용되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추정하면, 2021년 기준 전체 838만 3000여 명(여성가족부, 2022) 중 단순 대입하면 10만 여명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시작시기를 청소년기로 보고하고 있다(김신아, 2019; 김효순, 김서연, 박희서, 2016; 양미진 외, 2007; 오상빈, 2020; 이지민, 김영근, 2021; 이재영, 2014; 허경운, 2005; 황순길 외, 2005).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로서 이전보다 급격한 인지·정서·행동 발달이 일어나며,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장휘숙, 2004). 그러나 은둔청소년은 일정기간(3-6개월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활동하며 식사나 수면패턴의 불규칙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몰입, 개인의 외모 및 위생을 돌보지 않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김혜원, 2020). 특히 우울, 불안, 회피, 자살충동, 낮은 자존감 등의 정서 상태와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이라는 피해의식, 자신의 상황·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외로움,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과 좌절감, 무망감 등의 빠져 있다(김혜원 외, 2022). 이러한 은둔청소년의 특성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여 사회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집안에 칩거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안정감을 얻게 되는데(고스게 유코, 2012) 이로 인해 문제해결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채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은둔과 고립경험은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행복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상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관점에서의 조기 발굴 노력과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개입지원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은둔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초점화된 지원체계는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 상 취업과 맞물려 있는 청년 연령을 중심으로 주로 발굴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여성가족부는 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실태파악, 고립·은둔청소년 발굴·지원체계 마련, 은둔청소년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령 개정, 청소년기관 내 은둔청소년 대상 서비스 지원체계 운영 등을 포함하였다(여성가족부, 2023). 그리고 2023년 4월 11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은둔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4.11.). 특히 2024년부터는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은둔·고립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내각부 주관으로 2009년과 2015년에 각각 15세 이상에서 39세의 연령을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청년 생활 조사보고서’로 발간하였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히키코모리에 특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을 토대로 히키코모리 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히키코모리의 발굴 및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까지 모든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67개 지자체)에 설치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설치 주체를 시·군·구(2022년 18개 지자체)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지원 핵심인 상담 지원-거점조성-네트워크 구축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히키코모리 지원 스테이션 사업’(2022년 87개 지자체)과 8가지 지원 프로그램(상담, 당사자-가족 자조모임, 강연 및 워크숍 개최, 네트워크, 실태 파악 조사 등)을 선택해 실시하는 ‘히키코모리 지원사업’(2022년도 85개 지자체)도 시작되었다(함께걷는아이들, 2023). 영국의 경우에는 시민사회부 장관을 외로움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전 연령대 인구의 외로움을 정부 차원에서 자원하고 있다.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문제는 관련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 정부 및 공공 서비스 기관과 영리기관, 가족·공동체 등이 함께 관계망을 잇고 외로움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조근식, 2020; DCMS, 2018).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은둔청소년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은둔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정착되고,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발굴 및 연계개입 등 좀 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은둔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상담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은둔청소년은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심각하게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김혜원 외, 2022). 특히 기존의 은둔청소년을 발굴하는데 사용하는 스크리닝 척도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사용 연령이 청소년에 초점화되었다기 보다는 청소년과 성인까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둘째, 주로 정신의학 분야에서 병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척도는 은둔청소년 또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청소년상담복지현장에서는 종사하는 상담자가 은둔청소년을 판별할 수 있는 척도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타당성을 검증한 기존의 척도들은 25문항 이상으로 현장에서 청소년상담자들이 평가하기에는 문항 수가 다소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상담자가 은둔청소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연계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발굴된 은둔청소년에게 적절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청소년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립·은둔 청년 지원목표 및 단계를 설정한 파이(PIE) 은둔 및 고립청년 지원프로그램 매뉴얼(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2022)에서는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활력회복 → 사회재적응 → 사회통합의 전개과정을 통해 지원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은둔당사자, 가족, 친구·동료, 지역사회가 점차적으로 은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체계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 체계 속에서 은둔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구체적인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과제

첫째, 청소년상담 현장에 활용 가능한 은둔청소년 발굴을 위한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한다.

둘째, 은둔청소년을 위한 발굴 및 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은둔청소년의 이해

가. 은둔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은 1970년대 일본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청년실업이 증가하며 청년들이 세상과 접촉을 끊은 채 집에서만 지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유의 현상을 ‘히키코모리’로 명명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를 ‘은둔형 외톨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국내에도 은둔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은둔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 단위 공식 자료는 없다. 다만, OECD 기준 우리나라의 15~29세 청소년의 니트 비중(18.9%)이 다른 국가의 평균(1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김기현 외, 2018), 15~29세의 사회적 고립청년 비율은 2.7%로 약 29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김기현 외, 2020). 또한 18~24세 은둔청소년의 발생률은 1.97%(윤철경 외, 2022), 은둔 유경험자 중에서 약 40%가 ‘청소년기’에 은둔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는(광주광역시, 2020) 수치를 통해 청소년 연령대(9세~24세)의 은둔형 외톨이의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청소년 은둔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은둔형 외톨이를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를 철회하고 집이나 방에서 나가지 않는 현상(윤철경, 서보람, 2020) 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은둔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은둔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임의적 해석이 많아(부산복지개발원, 2022) 뚜렷하게 ‘은둔’의 경계와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초침화 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정책적으로 국정과제로 제시된 청년실업과 청년고립의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지면서 주로 청년 연구에 초점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성장진입기(Arnett, 2000)가 서로 겹쳐져 있어 두 집단을 함께 다루기도 하지만, 청소년 대상, 이들 발달단계를 주요하게 다룬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관계)과 공간적 고립(은둔)의 두 가지 개념

을 혼용 하거나 또는 하나의 개념만 활용하고 있어 통합적인 차원에서 은둔의 개념을 정확하기 정의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은둔’에 대해서는 대부분 청년고립에서 연구된 청소년기의 중첩된 요소들만을 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조미형 외, 2021)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는 사회적인 접촉범위, 은둔 특성, 은둔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윤철경과 서보람(2020)은 6개월을 기준으로 ‘다양한 요인으로 취학, 취업 등의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6개월 이상 타인과의 교류를 단절한 사람’, 6개월 이상 집에서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에는(심지어 가족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여인중(2005)은 ‘친구 없이(혹은 하나) 3개월 이상 집 밖 출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기도 했다. 은둔 기간에 관하여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Wong 등(2015)에 따르면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은둔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간에 초점을 둔 것과 더불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법 제정에 따른 법률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2019년 10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서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가족 이외의 사회적 교류와 단절된 채 한정된 공간에서 칩거하며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

나. 은둔청소년의 특성

은둔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은둔형 외톨이 특성 자체에 주목하기 보다는 관련 요인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김혜원(2020)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들의 행동적, 인지·정서적, 성격·대인관계적 특성으로 구분하는 관점을 통해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행동적으로 일정기간(3~6개월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활동하며 식사나 수면패턴의 불규칙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몰입, 개인의 위모 및 위생을 돌보지 않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인지·정서적으로는

우울, 불안, 초조, 자살충동, 낮은 자존감 등의 정서 상태와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이라는 피해의식, 자신의 상황·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외로움,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과 좌절감, 무망감 등의 인지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여 사회적 기술 부족에 이르게 되고 집안에 칩거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안정감을 얻으면서(고스게 유코, 2012) 이로 인해 문제해결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채 사소한 문제에도 위축되는 은둔 상태가 지속하게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계기가 되는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데, 은둔을 시작한 계기로는 대인관계에서의 상처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감, 가정 내의 갈등 및 돌봄의 부재 또는 보호자의 과잉통제와 간섭 요인 등이 제시되고 있다(이영식 외, 2022).

다. 은둔청소년의 발굴을 위한 스크리닝 척도

일본 내각부에서 발간한 ‘청년 생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 시기는 24세 이하가 77.5%로 가장 많았고(2016), 은둔 유경험자 중에서 약 40%가 청소년기에 은둔생활을 시작하여(광주광역시, 2020) 청소년 시기의 은둔 조기 발굴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상담자가 은둔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스크리닝 척도는 부재하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은둔청소년 선별척도를 살펴보면, 개정판 아동용 사회불안척도와 아동용 우울척도의 공존타당도를 통해 개발한 부모 작성 자녀 은둔평가 척도(백형태 외, 2011), 은둔형 외톨이 자가보고 척도(25-item Hikikomori Questionnaire, 이하 HQ-25; 제세령 외, 2022),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체크리스트(2007)가 있다.

먼저 부모 작성용 은둔형 외톨이 선별 도구는 전문가 5명이 문헌 검토를 통해 예비 문항을 만든 후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되는 부모 즉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등도 이상의 정신지체가 아니면서 3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8-25세)의 부모 42명과 일반인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이를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4개요인 34문항이 추출되었다. 4개 요인은 회피(avoidance)요인, 단절(withdrawal)요인, 고립(isolation)요인, 무관심(indifference)요인이었으며, 회피요인 18문항, 단절요인 7문항, 고립요인 3문항 그리고 무관심 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공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부모 작성용 은둔형 외톨이 선별도구는 타당한 척도인 것이 증명되었으며, 은둔형 외톨이의 절단점을 T점수를 기준으로 심각한 집단은

52.52점 이상 위험 집단은 46.12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Teo 등(2018)이 개발한 은둔형 외톨이 자기보고식 척도(HQ-25)가 있다. 이 척도는 사회화, 고립 그리고 심리적 지지라고 하는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25개 문항으로 사회화(socialization)는 10문항, 고립(isolation)은 9문항 그리고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cut-off는 4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세령 등(2022)은 이 척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 143명(은둔형 외톨이 45명, 대조군 98명)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 그 결과 타당한 척도로 증명되었으며, 이를 한국어판 은둔형 외톨이 자기보고 척도로 명명하였다. 또한, 양미진 등(2007)이 개발한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문헌조사, 면접조사 등을 통해 예비 문항을 개발하고, 재학생과 은둔형부적응 청소년 1,072명을 대상으로 문항 개발 및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 척도는 5요인(불안, 사회적 기술, 사회적 철회, 대인예민성, 공격성) 33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은둔형 외톨이 선별척도 리스트

번호	척도명	문항수	사용연령	연구자	개발 시기
1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체크리스트	32문항	초·중·고등학생	양미진 외	2007
2	부모작성용 은둔형 외톨이 선별도구	36문항	8~25세 사이 대상자의 부모	백형태 외	2011
3	은둔형 외톨이 자기보고 척도 (HQ-25)	25문항	13세 이상	Toe et al.	2018
4	은둔형 외톨이 간단 체크리스트	15문항	-	김혜원 외	2022
5	외톨이 성향 척도	16문항	중고등학생	이시형	2000
6	히키코모리 체크리스트(HBCL)	45문항	고등학교 1, 2학년	Sakai et al.	2004

그 외에 이시형 등(2000)이 개발한 은둔형 외톨이 경향 척도는 소외와 외로움, 사회적 유능감, 친구들과의 상호교류 세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 수는 16문항이었으며, 다. Sakai 등(2004)가 개발한 HBCL 척도도 있다. 이 척도는 이윤지(2015) 등에 의해 번역

되었으며, 공격적 행동, 대인 불안, 강박 행동, 가족 회피 행동, 우울, 일상생활 활동의 결여, 이해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 사회 불참가, 활동성의 저하,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척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사용 연령이 청소년에 초점화되었다기 보다는 청소년과 성인까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둘째, 주로 정신의학 분야에서 병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척도는 은둔청소년 또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청소년상담복지현장에서는 종사하는 상담자가 은둔청소년을 판별할 수 있는 척도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타당성을 검증한 기존의 척도들은 25문항 이상으로 현장에서 청소년상담자들이 평가하기에는 문항 수가 다소 많았다.

<표 2> 은둔형 외톨이 선별척도의 구성요인

요인	하위요인	백형태 외 (2011)	Toe et al. (2018)	양미진 외 (2007)	김혜원 외 (2022)	이시형 외 (2000)	Sakai et al. (2004)
철수	고립	○	○	○	○	○	○
	단절	○			○		
관심	무관심	○					
관계	회피	○			○		○
	사회화		○			○	
	대인에민성			○			
생활	불규칙한 생활				○		○
	일상적인 활동의 결여				○		○
정신 건강	불안			○			○
	공격성			○	○		○
	강박이나 중독적 행동				○		○
	우울				○		○
	활동성의 저하						○
	이해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						○
지지	정서적 지지		○				

한편, 기존에 개발한 은둔청소년을 선별 및 평가하는 척도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다. 대부분의 척도에서는 은둔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인, 고립/단절, 회피/사회화, 불규칙한 생활/일상적인 활동의 결여 등이 공통요인으로 나타났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불안, 우울, 공격성 등이 있었고, 보호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정서적지지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은둔청소년의 판별에 초점을 두고 판별 결과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은둔청소년의 개념에 근거한 공통요인을 주요 요인으로 하는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상담자가 은둔청소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은둔청소년의 지원

가. 은둔청소년의 지원현황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은둔형 외톨이’ 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연구가 시작되었던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었다. 2010년 후반부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 번 제고되었는데 이는 청년 NEET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고립자에 대한 조례 등 법령을 통한 지원정책의 시작은 ‘노인의 고독사’ 문제로 인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기준 전국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관련 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보면 총 117개의 조례안이 확인되고 있다. 이후 ‘은둔형 외톨이’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게 된 계기는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라 할 수 있다.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 기준 ‘은둔형 외톨이’ 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는 총 16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원대상 연령대, 지원서비스 영역 등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김홍걸 의원 등 16인은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을 발의하였고, 이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처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긍정적이나 대체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는 청소년, 청년 등 각 대상별 지원정책에서 포괄하는 형태로 형성되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먼저 국내의 청소년 정책으로는 청소년사회안전망사업안에서 청소년동반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은둔청소년과 같은 고위기청소년을 지원하게 되어있다. 23년 4월에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개정안은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는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은둔형 청소년도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최대 월 65만원의 기초생활비, 연 200만원의 건강 치료비, 월 30만원의 교육비, 월 36만원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은둔형 청소년을 기존 유형을 벗어난 새로운 위기·취약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은둔형 청소년 규모 등 실태파악을 위한 지자체 실태조사 사례 확산을 실시하고 고립·은둔형 청소년 발굴·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고립·은둔 정의를 개발하고 지원모형 개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있다.

한편 19세 이상 청소년은 후기청소년으로서 청년의 범주에도 포함되는데 지난 2020년, 그동안 일자리 및 고용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었던 청년 연령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에서는 5년에 한 번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니트 및 고립청년의 특성을 분석하여 고립상황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학교-일자리 연계강화,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점검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 연령대에 맞는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김기현 외, 2020).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고립·은둔청년의 문제를 새로운 복지수요로 바라보고 지원체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고립·은둔 청년의 상세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배치 등이 포함되어있다.

민간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지원한 ‘희망플랜’ 사업이 있다. 전체 11개 사회복지관을 통해 수행된 본 사업은 지역 내 니트 청년 감소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 지역사회 참여 및 역량강화와 더불어 임시방편적인 취업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개인·가족·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 사업은 명칭과 재원을 다양화하여 이어져오다가 한국생명의 전화 ‘고립청년 밀착지원 프로그램’으로 2020년에도 추진되었다(윤철경, 서보람, 2020).

나. 은둔청소년의 지원체계 고찰

국내·외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상 취업과 맞물려 있는 청년 연령을 중심으로 하는 발굴체계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둔청소년 대상에 특정된 발굴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별로 정의하고 있는 은둔의 양상, 은둔의 정의(범위), 청년의 나이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 국가에 적절한 형태로 발굴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앞으로 청소년에 초점화된 발굴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은둔청소년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외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일본 내각부에서 발간한 ‘청년 생활 조사보고서’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및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을 중추로 히키코모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히키코모리에 특화된 전문적인 1차 상담 창구로서 기능을 갖는 ‘히키코모리 지역자원센터’를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곳을 토대로 히키코모리 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여 히키코모리의 발굴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시민사회부 장관을 외로움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전 연령대 인구의 외로움을 정부 차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문제는 관련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외로움과 행복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 정부 및 공공 서비스 기관과 영리기관, 가족·공동체 등이 함께 관계망을 잇고 외로움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조근식, 2020; DCMS, 2018).

국내에서는 은둔청소년에게 특화된 것은 아닌 고위기 청소년 및 청년 지원체계로 살펴볼 수 있는데, 민-관 다양하게 은둔 청년에 대한 발굴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자체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부문과 민간기관의 협력이 더욱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있는 경우, 대상자 상시발굴체계를 마련과 지역기반 전달체계 구축을 하고 있으며 타당도가 검증된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를 통해 대상자를 유형화하여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허브로서 각급 학교,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지자체, 지역 내 상담 및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를 통하여 은둔 당사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2023).

부산광역시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 및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조기 발굴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은둔 당사자 및 가족에게 적합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민관의 참여와 연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박주홍 외, 2022).

서울특별시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은둔형 고립군, 좌절형 고립군, 관계단절형 고립군, 의존형 고립군의 고립·은둔 청년의 4개 유형을 정의하였다. 유형별 지원방안과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주장하였다(서울특별시, 2022).

이렇듯 공공영역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청년층에 집중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청소년 대상의 조기 개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은둔청소년에 초점화된 연계 개입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윤철경 외, 2021). 최근 정부에서는 은둔청소년과 관련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 운영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은둔청소년 발굴-지원-연계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증대되리라 기대된다(여성가족부, 2023).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정책대상에 대한 지원 강화와 새로운 위기 청소년 유형의 발굴 및 지원을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경찰, 군 등 각 기관에서 위기청소년 정보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고 위기유형에 따라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 자립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의 발굴-지원-사후관리의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2.27.).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체계는 발굴-지원-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은둔청소년 지원체계에서도 유사한 시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립·은둔 청년 지원목표 및 단계를 설정한 파이(PIE)은둔 및 고립청년 지원프로그램 매뉴얼(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2022)에서는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활력회복→사회재적용→사회통합의 전개과정을 통해 지원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은둔당사자→가족→친구동료→지역사회가 점차적으로 은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체계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둔청소년에 최적화된 발굴 및 지원체계는 국내에서는 부재하며 유사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체계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교육체계에서는 학교내

담임교사 및 Wee Class 상담사를 통한 Wee 프로젝트 안에서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체계 안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장 전문가 대상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개발과 은둔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두 개의 연구문제별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1. 현장 전문가 대상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개발

가. 개발과정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와 기존에 개발된 척도를 분석하여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요인을 추출하고, 1차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최종 예비문항은 학계 전문가의 자문 및 평정을 통해 추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은둔(유경험)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타당화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척도를 개발하였다.

나.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총 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2023년 7월에 이루어졌으며 전국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읽고 자발적으로 응답하였다. 누락이나 오기입 등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참가자는 165명이었다. 참가자의 성별은 남성이 78명(47.3%), 여성이 87명(52.7%)이었으며,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119명(72.1%), 비재학중인 청소년이 46명(27.9%)이었다. 평균 나이는 19.11세였으며, 현재 은둔 상태인 청소년이 16명(9.7%), 현재 은둔이 아닌 청소년이 149명(90.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차 조사는 2023년 8월에 이루어졌으며 1차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13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여자 청소년이 99명(44.5%), 남자청소년 123명(55.4%)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19.02세였으며, 145명의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중이었고, 77명(34.7%)이 학

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7명(21.2%)가 현재 은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175명(78.8%)이 은둔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다. 측정도구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예비척도

본 연구에서는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최종 15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으로 철수하여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묻는 5문항,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을 묻는 5문항, ‘일상생활에서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0 = 해당되지 않는다, 4 = 해당된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은둔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둔형 외톨이 자가보고 척도

본 연구에서는 Teo 등(2018)이 개발하고 제세령, 최태영, 원근희, 봉수현(2022)이 타당화한 은둔형 외톨이 자가보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9개 문항으로 은둔형 정도를 측정하는 본 문항 25개와 동기를 측정하는 추가 문항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항은 다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화 10문항, 고립 9문항 그리고 정서적 지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0 = 해당되지 않는다, 4 = 해당된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본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은둔형 외톨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기는 높을수록 삶에 대한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해당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세령 등(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938이었다.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가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 13문항 중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설문으로 사용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본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정(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910이었다.

라.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예비척도의 15문항에 대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시행 전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여 다변량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KMO(Kaiser-Meyer-Olkin)와 Barlett 구형성 지표(Barlett's Test of Sphericity) 검증을 통해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성분분석과 프로맥스(Promax Rotation) 회전 방법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SPSS 22.0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mplus 8.4를 사용하였으며,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명력과 간명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Schumacker & Romax, 2004). 또한,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변별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진단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ROC 곡선(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을 사용하였다.

2.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가. 개발과정

본 연구에서 은둔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방안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현황조사의 최종 문항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고 학계 및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선정하였다. 그리고 은둔청소년 발굴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전문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은둔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고 최종 발굴 및 지원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나.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황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현황조사에서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자 중에서 설문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응답자 중 성실히 응답에 참여한 240명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59명(24.6%), 여성은 181명(75.4%)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53명(22.1%), 30대 95명(39.6%), 40대 52명(21.7%), 50대 40명(16.7%)이었다.

그리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3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와 2차 FGI에서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은둔청소년 상담경험이 있는 전문가 8명(상담복지센터 5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명)과 지역사회에서 은둔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공공부분 전문가 8명(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자체안전망 통합사례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차와 2차 FGI에서의 연구참여자는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고, 2차 FGI에서는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인 편의표본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현황조사의 경우,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FGI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고 면접 주진행자와 공동연구자 3인이 녹취록을 읽어가며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코딩하였다. FGI 시간은 집단별로 2시간~2시간 반 정도에 소요되었으며,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위하여 연구질문에 얽매이지 않고 진행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전체 연구진이 축어록을 읽어가면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주제별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의미단위들을 유사성, 구별성,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면서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지와 각 의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범주화 되었는지 살펴보고(Morgan, 1997) 최종 수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현장 전문가 대상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개발

가. 1차 요인과 예비문항 개발

은둔청소년을 선별하고 은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스크리닝 척도 개발을 위해 연구진은 은둔청소년 관련 문헌검토 및 기존 척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개발된 척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사용 연령이 청소년에 초점화되었다기 보다는 청소년과 성인까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둘째, 주로 정신의학 분야에서 병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척도는 은둔청소년 또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청소년상담복지현장에서는 종사하는 상담자가 은둔청소년을 판별할 수 있는 척도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타당성을 검증한 기존의 척도들은 25 문항 이상으로 현장에서 청소년상담자들이 평가하기에는 문항 수가 다소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개발한 은둔청소년을 선별 및 평가하는 척도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척도에서는 은둔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인, 고립/단절, 회피/사회화, 불규칙한 생활/일상적인 활동의 결여 등이 공통요인으로 나타났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불안, 우울, 공격성 등이 있었다. 또한 은둔청소년의 보호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정서적지지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은둔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이나 위험요인 및 지지자원까지 포괄하고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종사자가 은둔청소년을 선별하는데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둔청소년의 판별 유무에 따라 지원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은둔청소년의 개념에 근거한 공통요인을 주요 요인으로 하는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둔청소년의 공통특성 영역에서 사회단절/고립(8문항), 회피(6

문항), 불규칙한 생활방식(6문항)을 요인으로 추출하였고, 정신건강 영역에서 우울/불안(9문항), 공격행동(6문항), 강박 및 중독행동(3문항)을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서적지지 영역에서 부모지지(4문항)를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이와 같이 7개의 요인과 42개의 예비문항을 추출하였다.

나.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예비척도 구성

예비문항은 은둔청소년 연구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 2인의 자문과 평정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통특성 영역의 3개 요인의 문항 중 전문가 평정 5점 만점 중 4.5이하의 3문항과 의미가 중첩되는 2문항을 제외하여 문항 수를 총 15문항으로 축약하였다. 특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1차로 선정한 3개 영역 중 공통특성 영역의 3개 요인을 은둔의 수준으로 나누는 기준요인으로 설정하고, 이외의 은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험성을 확인하는 요인은 본 척도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본 척도 개발 후 활용방안으로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철수하여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묻는 5문항(예, 학교나 직장(알바)에 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인터넷(유튜브)이나 게임에 몰두한다 등),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을 묻는 5문항(예, 남들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까봐 걱정한다, 누군가와 연락(통화, 문자 등)을 하는 일이 별로 없다, 가능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한다 등), ‘일상생활에서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의 5문항(예, 방을 정리하지 않아 지저분하다, 일상생활이 불규칙하다,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탐색적 요인분석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15개의 예비문항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은 .156과 1.117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첨도의 절대값은 .193과 1.092 사이에 분포하였다. 따라서 왜도의 절대값은 3 이하, 첨도의 절대값은 8 이하라는 정규성 가정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1). 다음으로 본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

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와 Barlett 구형성 지표(Barlett's Test of Sphericity)를 검증한 결과, KMO는 .907, Barlett 구형성 지표는 $\chi^2(78)=1459.739$ ($p<.001$)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후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고유값(eigen value)과 스크리도표를 살펴본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총 3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부하량이 .40보다 낮거나 다른 요인과 .20 이상 중복되는 2개의 문항 즉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문항과 '개인위생(두발 및 손 발톱 정리, 양치 등)을 신경쓰지 않는다' 는 문항은 변별력과 타당성이 저하시키기 때문에 삭제하였다(Shin et al, 2015). 그 결과 최종적으로 13개의 문항이 남았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을 살펴보면, 요인 1은 5문항으로 사회적으로 철수하여 혼자 고립된 상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회단절 및 고립' 으로 명명하였으며, 설명 변량은 전체의 54.499%였다. 요인 2는 5문항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회피' 라고 명명하였다. 설명변량은 전체의 8.125%였다. 요인 3은 3문항으로 정리를 안 하고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불규칙한 생활방식' 으로 명명하였다. 설명변량은 전체의 7.74%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이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28이었으며, 요인 1은 .882, 요인 2는 .867, 요인 3은 .809로 모두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표 3>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값			
해당요인 번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사회단절/ 고립	1	학교나 직장(알바)에 가지 않는다	.970	-.158	-.193
	2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	.807	.196	-.064
	3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인터넷(유튜브)이나 게임에 몰두한다	.797	.219	-.069
	4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785	-.185	.177
	5	가족이 없을 때(혹은 잘 때)만 움직인다	.691	-.026	.244
회피	6	남들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까봐 걱정한다	-.299	1.059	-.124
	7	하루 종일 거의 집에서 보낸다	.176	.690	.024
	8	누군가와 연락(통화, 문자 등)을 하는 일이 별로 없다	.244	.623	.004
	9	친구가 거의 없다	.156	.582	.132
	10	가능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싫어한다	.093	.574	.273

불규칙한 생활방식	11	방을 정리하지 않아 지저분하다	-.243	.092	.923
	12	일상생활이 불규칙하다	.076	-.081	.863
	13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	.077	-.076	.833
설명변량(%)			54.499	8.125	7.774
고유치			7.085	1.068	1.011
신뢰도			.892	.867	.809

라.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후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에 대한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변별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ROC 척도를 통해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진단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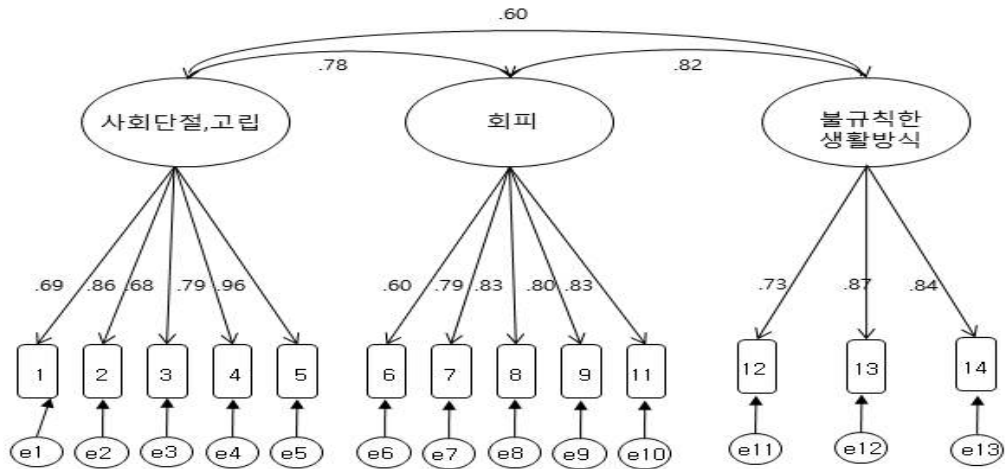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3개의 하위요인(13문항)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하여 3요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3요인 연구 모형은 CFI = .956 TLI = .945, RMSEA = .079로 나타났다<표 4>. CFI와 TLI는 .90 이상,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RMSEA는 .05와 .08 사이면 수용할만한 적합도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홍세희, 2000), 3요인 연구모형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둔청소년을 판별하기 위해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 보다 1개의 요인 즉 총점을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3요인 연구모형과 1요인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CFI = .796, TLI = .755, RMSEA = .167로 나타났다. 또한 1요인 구조 모형은 CFI와 TLI가 .90보다 작고 RMSEA도 .167로 .1 이상이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요인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총점으로 은둔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그림 1) 과 같이, 은둔청소년 체크리스트의 하위요인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50 이상(.60 ~ .96)으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지수

(N = 222)

모형	χ^2	df	RMSEA	CFI	TLI
1요인 모형	466.016***	65	.167	.796	.755
3요인 모형	148.076***	62	.079	.956	.945

***p < .001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마. 타당도 분석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을 일반집단과 은둔 의심 집단으로 구분하고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집단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때 은둔 의심 집단은 스스로 현재 은둔(사회적 교류 단절) 상태에 있으며, 은둔 상태가 3개월 이상인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은둔 의심 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하위요인 사회단절 및 고립($F=213.167, p<.001$), 회피($F=99.262, p<.001$), 불규칙한 생활방식($F=57.718,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 자가보고척도, 우울 척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하위요인은 모두 은둔형 외톨이 자가보고척도(사회 단절 및 고립: $r = .68, p < .001$, 회피: $r = .78, p < .001$, 불규칙한 생활방식: $r = .64, p < .001$)와 우울척도(사회 단절 및 고립: $r = .54, p$

< .001, 회피: $r = .75, p < .001$, 불규칙한 생활방식: $r = .69, p < .001$)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은둔청소년 체크리스트가 변별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 집단별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평균과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

(N = 222)

	일반집단 (N=175)		은둔의심 집단(N=47)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단절 및 고립	5.47	3.93	14.72	3.55	213.167***
회피	8.28	4.89	15.85	2.54	99.262***
불규칙한 생활방식	4.05	3.36	8.00	2.23	57.519***

***p < .001

<표 6>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와 공인타당도 검증 척도 간 상관관계

(N = 222)

요인		1	2	3	4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1. 사회 단절 및 고립	-			
	2. 회피	.73**	-		
	3. 불규칙한 생활방식	.62***	.74***	-	
공인타당도 척도	4. 은둔형 외톨이 자가 척도	.68***	.78***	.64***	
	5. 우울 척도	.54***	.75**	.69***	.70***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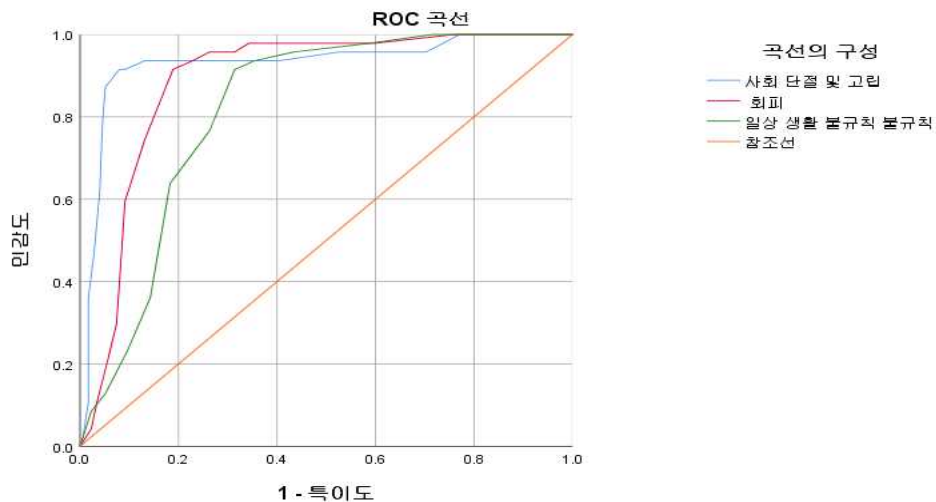
바. 은둔청소년 진단의 절단점과 의미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진단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ROC 곡선(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를 통해 은둔청소년 집단과 비은둔청소년 집단을 변별 가능한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ROC 곡선을 통해 산출된 Area under curve(AUC)는 사회단절 및 고립이 .929, 회피가 .888, 불규칙한 생활방식이 .818로 나타났다. 본 척도를 통한 진단은 AUA가 .75~.92일 때 유용하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Holmes,

1998), 본 척도는 은둔청소년을 적절하게 판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ROC 곡선으로 분석하여 하위요인들의 평균 점수를 근거로 했을 때 준거집단을 변별하는 절단점 추정 지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인 Youden's index를 사용하였다 (Fluss, Faraggi, & Reiser, 2005). Youden's index는 민감도+특이도-1로 계산되며 Youden's index가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인 진단기준임을 의미한다.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Youden's index를 살펴본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단절 및 고립은 11.5점(20점 만점)에서, 회피는 13.5점(20점 만점)에서 불규칙한 생활방식은 5.5점(12점 만점)이 절단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하위요인별 절단점, 민감도, 특이도, Youden's J
(N = 222)

요인	절단점	민감도	특이도	Youden's J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사회 단절 및 고립	11.5	.915	.920	.835
	회피	13.5	.915	.811	.726
	불규칙한 생활방식	5.5	.915	.686	.601



[그림 2]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ROC 곡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는 은둔청소년을 판별하는 데 적절하며, 하위요인인 사회단절 및 고립, 회피, 불규칙한 생활방

식 등 모든 영역에서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보인 청소년을 은둔청소년으로 판별할 수 있다,

2.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가. 현황 조사

1) 현황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청소년상담복지현장에서 은둔청소년 상담/개입 현황을 이해하고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현황조사 문항 개발에 앞서 광주광역시(2020), 부산광역시(2022), 서울특별시(2022)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문항과 국회입법조사처(2021), 청소년정책연구원(2020) 등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과 지원 등에 관한 선행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을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은둔청소년의 정의, 은둔청소년 개입 경험, 은둔의 주요 계기, 은둔 시 주요 활동·생활, 은둔형 외톨이 및 은둔형 외톨이 부모(보호자)에게 지원한 서비스 내용 등의 요인을 선별하여 청소년상담복지기관으로 유입된 은둔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상담 경험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 개입 매뉴얼 개발 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박사 1인과 교육학 석사 1인, 사회복지학 석사 1인이 초안을 구성하였고 교육학 박사 2인과 논의하여 1차 문항을 개발하였다. 1차 문항은 선행 연구에서 선별한 요인 외에도 청소년상담복지현장의 전문가들이 은둔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이해 정도, 은둔청소년의 효과적 발굴 및 연계를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추가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 현장에서의 은둔청소년의 현황과 개입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은둔청소년의 효과적인 발굴-개입-연계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기관, 상담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할 지를 확인하여 제언 사항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발한 문항은 다수의 은둔청소년을 상담/개입한 현장 전문가 2인과 은둔형 외톨이 연구 경험이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책임연구자 1인에게 자문을 하였다.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은둔을 반복하는 재 은둔청소년 관련 문항 추가, 문항

및 보기의 표현에서 은둔의 유형·정도에 대한 감수성 향상, 은둔청소년 부모 관련 문항 추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자문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다. 최종 문항의 주요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현황조사 최종 문항

구분	영역	비고
은둔 이해 정도	은둔의 최소 기간	부산복지개발원(2022)
	은둔에 대한 이해 수준	국회입법조사처(2021) 수정
은둔청소년 경험	은둔청소년 개입 경험 유무와 경험 횟수	국회입법조사처(2021) 수정
	개입한 은둔청소년의 유형 등	국회입법조사처(2021) 수정
은둔청소년 현황	은둔 주요 계기	서울시(2022), 국회입법조사처(2021) 수정
	기관에 방문한 이유/목적	서울시(2022), 국회입법조사처(2021)
	청소년이 호소하는 정신건강 어려움	연구진 개발
	은둔 이전 경험한 부정적 사건/경험	서울시(2022) 수정
	실내에서의 주요 활동/생활	서울시(2022) 수정
	은둔 최초 시작, 소속 기관 최초 접수 연령	연구진 개발
	재은둔청소년 개입 유무, 재은둔 계기/이유	연구진 개발
	자녀의 은둔을 인지한 시점 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수정
부모 현황	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	부산시(2022), 서울시(2022) 수정
	자녀를 돕기 위한 부모의 노력	서울시(2022) 수정
청소년·부 모 지원	청소년에게 제공한 효과적인 서비스 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수정
	은둔청소년 개입 종결 경험과 이유	연구진 개발
	부모에게 제공한 효과적인 서비스	서울시(2022), 국회입법조사처(2021) 수정
	청소년 유관기관 연계 경험, 연계 이유/목적	연구진 개발
제언 사항	은둔청소년 희망/필요 서비스 등	서울시(2022), 국회입법조사처(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수정
	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 등	서울시(2022), 국회입법조사처(2021) 수정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자체 정보망인 CYS-Net과 꿈

드림 정보망 등을 통해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자 중에서 설문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응답자 중 성실히 응답에 참여한 240명의 답변을 분석하였으며, 조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9>와 같다.

<표 9> 현황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240)

	구분	명	비율(%)
성별	남	59	24.6%
	여	181	75.4%
연령	20대	53	22.1%
	30대	95	39.6%
	40대	52	21.7%
	50대	40	16.7%
근무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87	36.3%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27	11.3%
	전라권(광주·전북·전남)	47	19.6%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69	28.8%
	강원권	9	3.8%
	제주권	1	0.4%
소속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0	45.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0	54.2%
경력	1년 미만	39	16.3%
	1년 이상 ~ 3년 미만	60	25.0%
	3년 이상 ~ 5년 미만	36	15.0%
	5년 이상 ~ 7년 미만	59	24.6%
	10년 이상	46	19.2%
직위	센터장, 소장	13	5.4%
	팀장, 부장 등의 중간 관리자	38	15.8%
	청소년동반자	26	10.8%
	팀원, 부원, 상담원 등 실무자	161	67.1%
	기타	2	0.8%

2) 현황 조사 결과

가) 은둔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청소년상담복지현장의 은둔청소년 상담/개입 현황을 확인하기에 앞서, 종사자의 은둔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정도를 확인하였다.

본 조사의 참여자들은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은 채 집(방) 등 한정된 장소에서만 머무르며 대인관계/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 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할 수 있는 은둔 기간의 기준을 3개월(119명, 49.6%), 6개월(90명, 37.5%), 12개월(27명, 11.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0> 은둔으로 정의할 수 있는 최소 기간 (n=240)

구분	명	비율(%)
~ 3개월	119	49.6%
~ 6개월	90	37.5%
~12개월	27	11.3%
~18개월	2	0.8%
~24개월	2	0.8%

은둔청소년의 정의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6.3%(159명)가 ‘어느 정도 이상은 알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

<표 11> 은둔청소년의 정의와 지원 방안에 대한 지식 수준 (n=240)

구분	명	비율(%)
매우 모른다	2	0.8%
잘 모른다	79	32.9%
조금 안다	110	45.8%
잘 안다	44	18.3%
매우 잘 안다	5	2.1%

응답 참여자가 인지하고 있는 은둔청소년의 유형으로는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212명, 88.3%)’,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210명, 87.5%)’,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한다(159명, 6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은둔청소년의 유형(중복 응답) (n=240)

구분	명	비율(%)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	212	88.3%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210	87.5%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한다	159	66.3%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지만, 등교 일수 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등교를 한다	43	17.9%
혼자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	36	15.0%
(은둔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상담센터, 병원 등)	58	24.2%

나) 은둔청소년 대상 상담/개입 경험

청소년상담복지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설문조사 참여자 240명 중 58.3%(140명)가 ‘은둔청소년 상담/개입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은둔청소년 상담/개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소속을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가 53.6%(75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가 46.4%(65명)이다.

<표 13> 은둔청소년 대상 상담/개입 경험 (n=240)

구분	과거에 한 적이 있다/현재 하고 있다		없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명(%)	65(46.4%)	75(53.6%)	100(41.7%)
	140(58.3%)		

은둔청소년을 경험하지 않은 이유로는 ‘소속기관에 은둔청소년이 접수되었거나 소속기관이 직접 개입을 한 적이 없어서’ 은둔청소년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이 51.0%(51명)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14> 은둔청소년 미경험 이유

(n=100, 단위: 명)

구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합
소속기관에 은둔청소년이 접수되거나 소속기관에서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	24(24.0%)	27(27.0%)	51(51.0%)
소속기관에서 직급/전문성 등의 이유로 다른 상담자에게 은둔청소년을 배정하였다	18(18.0%)	21(21.0%)	39(39.0%)
개인적인 이유(직급/전문성 등)로 내가 은둔청소년 개입을 거부/고사하였다	1(1.0%)	1(1.0%)	2(2.0%)
기타	2(2.0%)	6(6.0%)	8(8%)

*기타: 접수 및 사례 배정 후 은둔청소년이 상담/개입을 거부, 연락두절 등

은둔청소년 상담/개입 경험자 140명 중에서 82.1%(115명)는 남자 청소년을, 61.4%(86명)는 여자 청소년을 지원하였다고 응답했다.

<표 15> 상담/개입한 은둔청소년의 성별 및 인원(중복 응답)

(n=140,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1명	58(41.4%)	50(35.7%)
2명	36(25.7%)	21(15.0%)
3명	9(6.4%)	7(5.0%)
4명	6(4.3%)	3(2.1%)
5명	2(1.4%)	4(2.9%)
5명 초과	4(2.9%)	1(0.7%)
합	115(82.1%)	86(61.4%)

상담/개입한 은둔청소년의 유형으로는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106명, 75.7%)’,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한다(95명, 67.9%)’,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80명, 5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상담/개입한 은둔청소년의 유형(중복 응답)

(n=140)

구분	명	비율(%)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	80	57.1%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106	75.7%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한다	95	67.9%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지만, 등교 일수 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등교를 한다	21	15.0%
혼자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	19	13.6%
(은둔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상담센터, 병원 등)	34	24.3%

은둔청소년 상담/개입을 종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7.9%(109명)로, 종결 이유는 청소년 또는 부모(보호자)가 상담을 거부(42, 30.0%), 은둔 관련 혹은 호소문제가 해결(32, 22.9%), 청소년의 위기 수준, 희망 서비스를 고려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21, 15.0%) 등으로 나타났다.

<표 17> 은둔청소년 종결 경험 유무 및 종결 이유

(n=140)

구분	명	비율(%)	
종결 경험이 있다	청소년 또는 부모(보호자)가 상담을 거부하여 종결되었다	42	30.0%
	은둔 관련 혹은 호소문제가 해결되어 종결하였다	32	22.9%
	청소년의 위기 수준, 희망 서비스를 고려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였다	21	15.0%
	이직, 퇴사 등 상담자의 개인적 이유로 종결되었다	6	4.3%
	나의 직급/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상담자/전문기관으로 연계하였다	1	0.7%
	기타	7	5.0%
상담/개입 중으로 아직 종결을 한 적이 없다	31	22.1%	

*기타: 회기 및 연령 제한 등의 규정으로 종결, 검정고시 합격 등 1차 목표 달성 후 추가 목표 설정 실패, 군입대 등

앞의 문항에서 ‘은둔 관련 혹은 호소문제가 해결되어 종결되었다’ 고 응답한 참여자는 은둔청소년 상담/개입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이유로 상담자와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 경험(9명, 28.1%), 내담자의 욕구 파악 및 희망 서비스 제공(6명, 18.8%), 가족 관계 개선(4명, 12.5%) 등을 꼽았다.

<표 18> 은둔청소년 상담/개입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이유 (n=32)

구분	명	비율(%)
상담자와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 경험	9	28.1%
내담자의 욕구 파악 및 희망 서비스 제공	6	18.8%
가족 관계 개선	4	12.5%
외부 활동, 프로그램 등 참여	3	9.4%
자기이해와 수용을 지원	3	9.4%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필요 서비스 제공	3	9.4%
성공 경험	2	6.3%
소통, 교류의 기회 제공	2	6.3%

‘은둔청소년 상담/개입을 계획대로 종결하지 못했다’ 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그 이유로 청소년/부모의 거부 또는 변화를 위한 준비 미흡(34명, 44.2%), 희망 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한계(8명, 10.4%), 위기 수준, 은둔 정도의 심각(7명, 9.1%) 등을 언급하였다.

<표 19> 은둔청소년 상담/개입을 계획대로 종결하지 못한 이유 (n=77)

구분	명	비율(%)
청소년/부모의 거부 또는 변화를 위한 준비 미흡	34	44.2%
희망 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한계	8	10.4%
위기 수준, 은둔 정도의 심각	7	9.1%
지속적 사례관리의 어려움	5	6.5%
회기, 연령, 거주지 제한 등 기관의 방침	5	6.5%
상담자 역량의 한계	4	5.2%
기관 접근성 취약	3	3.9%
상담자 업무 과중	2	2.6%
기타	3	3.9%
미응답	6	7.8%

* 기타: 은둔청소년의 특성이 아닌 모든 청소년이 지닌 특성인 것 같다 등

다) 청소년상담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은둔청소년의 특성

은둔청소년 상담/개입을 한 적이 있는 응답자 140명이 경험한 은둔청소년의 은둔의 계기,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이용 이유·목적, 정신건강, 집에서의 생활 등의 특성을 확인해보았다.

은둔청소년이 인간관계의 어려움(121명, 86.4%), 따돌림, 학교폭력 경험(91명, 65.0%), 가정 내 돌봄의 부재(74명, 52.9%) 등의 이유로 은둔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20> 은둔의 계기(중복 응답) (n=140)

구분	명	비율(%)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서(다른 사람과 대화, 함께 활동 등)	121	86.4%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학교폭력 등을 경험해서	91	65.0%
가정문제로 인한 돌봄의 부재, 양육 태만으로(가족 간 갈등,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 등)	74	52.9%
학교/사회생활이 어렵거나 무의미해서	55	39.3%
부모(보호자)의 양육태도로 인해(과잉통제/간섭, 과잉보호 등)	51	36.4%
인터넷/게임 등 더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43	30.7%
학업 문제 때문에(성적 스트레스, 입시/진학 실패 등)	38	27.1%
취업 문제 때문에(구직 실패, 실직 등)	13	9.3%
기타	7	5.0%

* 기타: 기질적인 민감성 등의 개인의 성향, 건강염려증, 외모자존감, 이유를 찾지 못했다 등

설문 참여자들은 은둔청소년이 청소년상담복지기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목적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 해소(89명, 63.6%), 복고, 검정고시 등 학업 지속 노력(78명, 55.7%), 대인관계 기술 향상(42명, 30.0%), 생활습관 개선(32명, 22.9%), 취업 등 진로 준비(32명, 22.9%) 등을 선택하였다.

<표 21> 청소년상담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목적(중복 응답)

(n=140)

구분	명	비율(%)
심리·정신적인 어려움 해소(우울, 불안, 공황 등)	89	63.6%
복교, 검정고시 등 학업 지속 노력	78	55.7%
대인관계 기술 향상	42	30.0%
취업 등 진로 준비	32	22.9%
생활습관 개선(규칙적인 시간에 기상, 수면 관리 등)	32	22.9%
기타	26	18.6%
가족과의 갈등 해소	22	15.7%
학교폭력 피해 등 외상 경험 극복	21	15.0%
컴퓨터·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해소	19	13.6%

*기타: 은둔청소년이 기관을 이용하려는 이유/목적 확인 불가(부모의 권유·강권 또는 연계기관의 의뢰), 경제적 지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등

청소년상담복지기관을 방문한 은둔청소년이 호소하는 정신건강 문제로는 우울(117명, 83.6%), 불안(99명, 70.7%), 공황/사회공포증 등(90명, 64.3%), 자살 및 자해(시도)(60명, 42.9%), 흡연/음주/인터넷 등 과사용, 과의존(48명, 34.3%), 강박(46명, 32.9%), 분노/충동성(38명, 27.1%)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은 경우는 3.6%(5명)이었다.

<표 22>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중복 응답)

(n=140)

구분	명	비율(%)
우울	117	83.6%
불안	99	70.7%
공황/사회공포증 등	90	64.3%
자살 및 자해(시도)	60	42.9%
흡연/음주/인터넷 등 과사용, 과의존	48	34.3%
강박	46	32.9%
분노/충동성	38	27.1%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	5	3.6%
기타	7	5.0%

*기타: 무기력, 수면문제, 선택적함구증 등 등

청소년상담복지기관을 방문한 은둔청소년은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의 괴롭힘이나 따돌림(92명, 65.7%), 부모님이 청소년을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65명, 46.4%),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헤어짐(63명, 45.0%),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청소년이 (간접) 목격(61명, 43.6%) 등의 경험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3> 은둔 이전 경험(중복 응답) (n=140)

구분	명	비율(%)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92	65.7%
부모님(양육자)이 청소년을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65	46.4%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헤어져야 했던 경험(절교, 죽음, 부모의 이혼, 별거 등)	63	45.0%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불안, 우울 등) 청소년이 (간접) 목격한 경험	61	43.6%
가까운 사람에게 학업, 취업 등 진로 문제로 압박, 강요를 받았던 경험	31	22.1%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27	19.3%
내가 원했던 대로 진학, 취업을 하지 못했던 경험	27	19.3%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23	16.4%
기타	10	7.1%

*기타: 부모의 무관심/방임 및 과잉 보호 등 부적절한 양육, 주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 등

은둔청소년은 평소 집에 있을 때 인터넷 사용(113명, 80.7%), 잠(111명, 79.3%), 온라인 게임(100명, 71.4%), 아무것도 하지 않음(66명, 47.1%) 등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 24> 평소 집에서의 생활(중복 응답) (n=140)

구분	명	비율(%)
인터넷 사용(쇼핑, SNS, 채팅, 동영상 시청 등)	113	80.7%
잠	111	79.3%
온라인 게임	100	71.4%
TV 시청	33	23.6%

음악 듣기	30	21.4%
학업/취업 등 진로를 위한 준비(검정고시 공부, 자격증 준비 등)	17	12.10%
책 읽기	10	7.1%
실내 운동	5	3.6%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66	47.1%
기타	5	3.6%

*기타: 취미활동(미니카 조립, 악기연주 등), 가사 돕기, 방에서 나오지 않아 알기 힘들다 등

은둔청소년은 PC/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온라인 게임(107명, 76.4%), 동영상 보기(101명, 72.1%), SNS나 채팅 등으로 누군가와 대화(66명, 47.1%), 인터넷 서핑(49명, 35.0%) 등을 하며, PC나 모바일 기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5.7%(8명)이었다.

<표 25> PC/모바일기기로 하는 활동(중복 응답) (n=140)

구분	명	비율(%)
온라인 게임	107	76.4%
동영상 보기	101	72.1%
SNS나 채팅 등으로 누군가와 대화	66	47.1%
인터넷 서핑	49	35.0%
PC나 모바일 기기를 잘 사용하지 않음	8	5.7%
기타	5	3.6%

*기타: 도박, 웹소설, 연예인 덕질, 창작 활동 등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종사자가 상담/개입한 은둔청소년이 은둔을 시작한 시점은 고등학교(17~19세)(114명, 81.5%), 중학교(14~16세)(97명, 69.3%), 후기 청소년(20~24세)(35명, 25.0%), 초등학교 4~6학년(21명, 15.0%) 순이었고 소수이기는 하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은둔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5명, 3.6%).

청소년상담복지기관을 방문한 시점은 고등학교(17~19세)(132명, 94.3%), 중학교(14~16세)(73명, 52.2%), 후기 청소년(20~24세)(45명, 32.2%), 초등학교 4~6학년(12명, 8.5%) 순이었다.

<표 26> 은둔청소년의 은둔 시작 및 기관 방문 시점의 성별·연령(중복 응답) (n=140 단위: 명)

구분	은둔 시작 시점		기관 방문 시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초등학교 3학년 이하(10세)	5(3.6 %)	0(0.0 %)	0(0.0 %)	0(0.0 %)
	5(3.6%)		0(0.0%)	
초등학교 4~6학년 이하(11~13세)	11(7.9 %)	10(7.1 %)	9(6.4 %)	3(2.1 %)
	21(15.0%)		12(8.5%)	
중학교(14~16세)	54(38.6 %)	43(30.7 %)	41(29.3 %)	32(22.9 %)
	97(69.3%)		73(52.2%)	
고등학교(17~19세)	67(47.9 %)	47(33.6 %)	74(52.9 %)	58(41.4 %)
	114(81.5%)		132(94.3%)	
후기 청소년(20~24세)	23(16.4 %)	12(8.6 %)	33(23.6 %)	12(8.6 %)
	35(25.0%)		45(32.2%)	

설문조사 참여자가 경험한 은둔청소년 중에서 은둔을 중단한 후에도 다시 은둔을 시작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25.5%(35명)의 응답자가 재은둔청소년을 상담/개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재은둔을 하게 된 계기로는 복교 등 새로운 생활 적응 실패, 새로운 좌절 경험(8명, 22.9%), 대인관계의 어려움 및 갈등 경험(8명, 22.9%), 가정 문제, 가족과의 갈등(4명, 11.4%), 심리/정서적 어려움(4명, 11.4%) 등이 있었다.

<표 27> 재은둔을 하게 된 계기

(n=35)

구분	명	비율(%)
대인관계의 어려움 및 갈등 경험	8	22.9%
복교 등 새로운 생활 적응 실패, 새로운 좌절 경험	8	22.9%
가정 문제, 가족과의 갈등	4	11.4%
심리/정서적 어려움	4	11.4%
검정고시 취득 등 목표 달성 후 새로운 목표 설정 실패/필요성 미인지	3	8.6%
과거 외상 경험 재인식	1	2.9%
생활관리의 어려움	1	2.9%
기타	6	17.1%

*기타: 재은둔의 계기를 알 수 없었다, 청소년과는 연락이 두절되어 모와 문자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등

라) 청소년상담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은둔청소년 부모(보호자)의 특성

은둔청소년 부모(보호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은둔이 상당 기간 지속된 후에야 자녀(청소년)가 은둔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자녀의 은둔 관련 문제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은둔청소년의 부모는 자녀의 은둔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76명, 54.3%), 6개월 미만(53명, 37.9%), 1년 이상 ~ 3년 미만(28명, 20.0%) 순으로 지속이 되고난 후에 자녀가 은둔청소년임을 인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은둔청소년이 은둔을 시작한 시점과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서 상담/개입을 시작한 시점을 비교해보았을 때 6개월 이상 ~ 1년 미만(67명, 47.9%), 1년 이상 ~ 3년 미만(55명, 39.3%), 6개월 미만(36명, 2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은둔 시작과 부모(보호자)가 은둔을 인지한 시점,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 상담/개입을 신청한 시점 간의 간격(중복 응답)

(n=140, 단위: 명)

구분	부모가 은둔을 인지한 시점과의 간격	기관에서 상담/개입을 시작한 시점과의 간격
6개월 미만	53(37.9%)	36(25.7%)
~ 1년 미만	76(54.3%)	67(47.9%)
~ 3년 미만	28(20.0%)	55(39.3%)
~ 5년 미만	5(3.6%)	12(8.6%)
~ 7년 미만	0(0.0%)	3(2.1%)
7년 이상	1(0.7%)	3(2.1%)

은둔청소년 부모가 자녀의 은둔을 뒤늦게 인지한 이유로는 가족 간 소통 부재, 무관심(27명, 23.1%), 일시적 문제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23명, 19.7%),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의 부재(17명, 14.5%), 은둔 이해 및 정보 부족(14명, 12.0%), 자녀(청소년)의 성격적 특성으로 이해(8명, 6.8%), 현실 부정,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음(8명, 6.8%), 단순 등교거부로 생각(6명, 5.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9> 자녀의 은둔을 뒤늦게 인지한 이유

(n=117)

구분	명	비율(%)
가족 간 소통 부재, 무관심	27	23.1%

일시적 문제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	23	19.7%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의 부재	17	14.5%
은둔 이해 및 정보 부족	14	12.0%
자녀(청소년)의 성격적 특성으로 이해	8	6.8%
현실 부정,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음	8	6.8%
단순 등교거부로 생각	6	5.1%
부모(보호자)의 성격/심리적 특성	3	2.6%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이해	3	2.6%
심리 정서적 어려움으로 이해	2	1.7%
기타	6	5.1%

*기타: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는 줄 알았다, 몸이 아픈 것이라고 여겼다 등

은둔청소년의 부모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11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확인하였다. 은둔청소년의 부모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몰라서 힘들(4.5점), 자녀/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함(4.4점), 자녀/청소년의 은둔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4.4점), 자녀/청소년의 불안/우울, 자살/자해(시도), 분노 등 정신 건강 악화의 두려움(4.2점), 자녀/청소년을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됨(4.0점), 자녀/청소년의 은둔으로 부부 갈등, 형제자매 간 갈등 등 가족 간 갈등 심화(4.0점), 자녀/청소년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잘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4.0점)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표 30> 은둔청소년 부모가 호소하는 어려움

(n=140,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만점)
자녀/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함	0 (0.0%)	6 (4.3%)	9 (6.4%)	48 (34.3%)	77 (55.0%)	4.4
자녀/청소년을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됨	1 (0.7%)	6 (4.3%)	24 (17.1%)	64 (45.7%)	45 (32.1%)	4.0
자녀/청소년을 돌보느라 개인적인 시간이 없음	9 (6.4%)	40 (28.6%)	40 (28.6%)	38 (27.1%)	13 (9.3%)	3.0
자녀/청소년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없음	11 (7.9%)	48 (34.3%)	34 (24.3%)	34 (24.3%)	13 (9.3%)	2.9

자녀/청소년을 돌보느라 경제적으로 힘듦	6 (4.3%)	27 (19.3%)	44 (31.4%)	42 (30.0%)	21 (15.0%)	3.3
해결할 방법이 없어/몰라서 힘듦	0 (0.0%)	3 (2.1%)	9 (6.4%)	47 (33.6%)	81 (57.9%)	4.5
자녀/청소년의 은둔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1 (0.7%)	4 (2.9%)	12 (8.6%)	43 (30.7%)	80 (57.1%)	4.4
자녀/청소년의 불안/우울, 자살/자해(시도), 분노 등 정신 건강 악화의 두려움	1 (0.7%)	4 (2.9%)	22 (15.7%)	59 (42.1%)	54 (38.6%)	4.2
자녀/청소년의 은둔으로 부부 갈등, 형제자매 간 갈등 등 가족 간 갈등 심화	1 (0.7%)	7 (5.0%)	24 (17.1%)	66 (47.1%)	42 (30.0%)	4.0
자녀/청소년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잘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	1 (0.7%)	10 (7.1%)	29 (20.7%)	54 (38.6%)	46 (32.9%)	4.0
다른 자녀/청소년도 은둔을 할까 두려움	13 (9.3%)	30 (21.4%)	40 (28.6%)	46 (32.9%)	11 (7.9%)	3.1
전체 평균	3.8/5.0					

은둔청소년의 부모는 자녀를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며 믿고 기다렸다/격려해 주었다(87명, 62.1%)’, ‘상담소 등 상담기관을 알아보았다(87명, 62.1%)’,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게 권유했다(82명, 58.6%)’, ‘복교, 전학, 검정고시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권유했다(78명, 55.7%)’, ‘민간이나 공공 영역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60명, 42.9%)’ 등의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하지 않았다/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는 응답도 40.0%(56명)가 있었다.

<표 31> 자녀를 돕기 위한 은둔청소년 부모의 노력(중복 응답)

(n=140)

구분	명	비율(%)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며 믿고 기다렸다/격려해 주었다	88	62.9%
상담소 등 상담기관을 알아보았다	87	62.1%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게 권유했다	82	58.6%
복교, 전학, 검정고시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권유했다	78	55.7%

민간이나 공공 영역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60	42.9%
취업 및 직업훈련을 권유했다	30	21.4%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 자문 등을 받았다	28	20.0%
자조 모임에 참가하였다	6	4.3%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하지 않았다/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56	40.0%
기타	3	2.1%

*기타: 부부갈등을 해소하려 상담을 받았다, 학교 선생님과 논의하였다 등

마) 은둔청소년 상담/개입 현황

은둔청소년 상담/개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설문 참여자 140명에게 은둔청소년/부모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기관 및 연계 사유 등 상담/개입 현황을 확인하였다.

은둔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로는 ‘심리·마음건강 상담(불안, 우울 등)’,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학업 지속 지원(복교, 검정고시 등)’,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2> 은둔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n=140,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심리·마음건강 상담(불안, 우울 등)	75(53.6%)	20(14.6%)	13(9.9%)
②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10(7.1%)	33(24.1%)	20(15.3%)
③ 학업 지속 지원(복교, 검정고시 등)	8(5.7%)	26(19.0%)	23(17.6%)
④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23(16.4%)	15(10.9%)	14(10.7%)
⑤ 복지·생활 관련 안내 및 지원(생계급여, 수당 등)	9(6.4%)	13(9.5%)	15(11.5%)
⑥ 문화·취미 지원(독서, 영화, 취미 등)	4(2.9%)	12(8.8%)	14(10.7%)
⑦ 공동체 교류지원(동아리, 소모임, 자조집단 등)	4(2.9%)	6(4.4%)	15(11.5%)
⑧ 취업·진로 상담 및 교육(취업준비, 기술교육 등)	3(2.1%)	5(3.6%)	12(9.2%)
⑨ 건강검진 및 치료	4(2.9%)	7(5.1%)	4(3.1%)
⑩ 기타	0(0.0%)	0(0.0%)	1(0.8%)

*기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활동 제공

은둔청소년을 만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상담자가 청소년의 집으로 방문’, ‘청소년이 기관을 방문’, ‘청소년의 집이 아닌 카페, 공용 회의실 등 기타 다른 장소에서 만남’, ‘온라인 등 비대면 방법’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3> 은둔청소년을 만날 때 효과적인 방법 (n=140,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① 상담자가 청소년의 집으로 방문	60(42.9%)	22(18.8%)
② 청소년이 기관을 방문	48(34.3%)	31(26.5%)
③ 기타 다른 장소에서 만남(카페, 공용 회의실 등)	22(15.7%)	29(24.8%)
④ 온라인 등 비대면 방법	10(7.1%)	35(29.9%)

은둔청소년의 부모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로는 ‘자녀/청소년으로 인한 고민 등 개인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정보 제공’, ‘부모와 자식 간 가족 상담’, ‘은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정보 제공’은 3순위에서 가장 많이 응답(46건)하였고, ‘부모와 자식 간 가족 상담’은 2순위에서 가장 많이 응답(46건)하였지만 나머지 순위에서 응답 건 수가 많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2번째, 3번째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 은둔청소년의 부모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n=140,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자녀/청소년으로 인한 고민 등 개인 상담	74(52.9%)	32(24.6%)	16(13.3%)
②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정보 제공	19(13.6%)	22(16.9%)	46(38.3%)
③ 부모와 자식 간 가족 상담	16(11.4%)	46(35.4%)	19(15.8%)
④ 은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26(18.6%)	22(16.9%)	23(19.2%)
⑤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 자조 모임	2(1.4%)	6(4.6%)	11(9.2%)
⑥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 집단상담	1(0.7%)	2(1.5%)	5(4.2%)
⑦ 기타	2(1.4%)	0(0.0%)	0(0.0%)

*기타: 부부갈등 상황으로 인한 본인(모)에 대한 이해와 공감, 기초수급 등 경제적 지원 연계 등

상담/개입했거나 하고 있는 은둔청소년을 연계한 기관으로는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혹은 광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66명, 47.1%), 지역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혹은 광역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65명, 46.4%), 병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51명, 36.4%), 지자체(47명, 3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은둔청소년 연계기관(중복 응답) (n=140)

구분	명	비율(%)
지자체(시군구청 사례관리팀, 행정복지센터 등)	47	33.6%
WEE클래스, 학교, 교육청 등	25	17.9%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혹은 광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6	47.1%
지역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혹은 광역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65	46.4%
병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51	36.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전문 사설기관 (예시: K2인터내셔널 코리아,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8	5.7%
기타	10	7.1%

*기타: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해당 기관으로 은둔청소년을 연계한 이유로는 청소년의 심리·정서 건강 수준을 고려(85명, 60.7%), 청소년의 호소문제, 희망 서비스를 고려(50명, 35.7%), 청소년/부모(보호자)의 요청(45명, 32.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6> 해당 기관으로 은둔청소년을 연계한 이유(중복 응답) (n=140)

구분	명	비율(%)
청소년의 심리·정서 건강 수준 고려(심리검사, 약물치료 병행 등)	85	60.7%
청소년의 호소문제, 희망 서비스를 고려(독서, 영화, 취미, 진로 등)	50	35.7%
청소년/부모(보호자)의 요청	45	32.1%
지자체, 상위기관, 전문기관 등의 요청	18	12.9%
기타	9	6.4%

*기타: 복지·생활 관련 지원(생계급여, 수당 등), 지역사회 내 사례 관리 등

바) 은둔청소년 발굴, 연계 및 지원을 위한 노력 및 필요 사항

설문에 응한 240명의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은둔청소년의 효과적인 발굴과 연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와 은둔청소년 및 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응답자들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은둔청소년의 발굴을 위해 ‘국가/지자체 중심의 은둔청소년 사례 관리 및 연계망 구축·운영’, ‘은둔청소년 지원 법령·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은둔청소년 및 고위험군 청소년 발견 시 청소년상담복지기관 등의 개입·연계 강제성 및 권한 부여’, ‘청소년상담복지기관 등에 전문 인력 배치 및 예산 배정’, ‘은둔청소년에 대한 정의 수립 및 국민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은둔청소년 지원 법령·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는 1순위에서 가장 많이 응답(47건)하였고, ‘은둔청소년에 대한 정의 수립 및 국민 인식 개선’ 역시 1순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응답(46건)하였지만 나머지 2, 3순위에서 응답 건수가 많지 않아서 은둔청소년의 발굴을 위해 국가/지자체에서 필요한 노력 2번째, 5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서술식 의견으로는 ‘(은둔청소년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 보다 포괄적으로 위기청소년의 지원방안에 대한 예산 투입 및 관리가 필요함’, ‘은둔형 외톨이 말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좋겠음, 낙인 효과 우려’, ‘거대한 정책수립보다는 발견된 청소년을 민관 협업하여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역할 배정’ 등이 있었다.

<표 37> 은둔청소년 발굴을 위해 필요한 노력_국가 및 지자체 차원

(n=240,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국가/지자체 중심의 은둔청소년 사례 관리 및 연계망 구축·운영	33(13.8%)	41(17.2%)	37(15.9%)
② 은둔청소년 지원 법령·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47(19.6%)	40(16.8%)	21(9.1%)
③ 은둔청소년 및 고위험군 청소년(상습 결석, 학교폭력 피해 등) 발견 시, 학교, 청소년상담복지기관 등이 개입 및 연계하도록 강제성 및 권한 부여	29(12.1%)	35(14.7%)	25(10.8%)
④ 학교, 청소년상담복지기관 등에 전문 인력 배치 및 예산 배정	29(12.1%)	24(10.1%)	32(13.8%)
⑤ 은둔청소년에 대한 정의 수립 및 국민 인식 개선	46(19.2%)	19(8.0%)	19(8.2%)
⑥ 유관기관별 상담/개입하는 은둔청소년의 유형과 제공 서비스 등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준 확립	15(6.3%)	23(9.7%)	26(11.2%)

⑦	은둔 (청소년) 전문기관 설치	15(6.3%)	24(10.1%)	21(9.1%)
⑧	학교 교사,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종사자 등 대상으로 은둔청소년 관련 교육 실시	12(5.0%)	18(7.6%)	29(12.5%)
⑨	은둔(청소년) 전국 실태조사 및 국가 통계 관리	14(5.8%)	14(5.9%)	22(9.5%)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서 은둔청소년 발굴을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는 ‘상담자 대상 은둔청소년 및 부모(보호자) 상담/개입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지자체, 상위기관과 은둔청소년 발굴-지원-연계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은둔청소년의 발굴-지원-연계 등 개입 관련 기준 제시’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 상위기관과 은둔청소년 발굴-지원-연계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은 1순위에서 가장 많이 응답(68건)하였지만 2, 3순위에서 응답 건 수가 많지 않아서 은둔청소년의 발굴을 위해 필요한 기관의 노력 2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서술식 의견으로는 ‘교육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은둔청소년 발굴-지원-연계 교육’, ‘은둔청소년을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과 자조모임 등이 필요함. 부모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음’이 있었다.

<표 38> 은둔청소년 발굴을 위해 필요한 노력_기관 차원

(n=240,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상담자 대상 은둔청소년 및 부모(보호자) 상담/개입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32(13.3%)	54(22.8%)	56(24.1%)
② 지자체, 상위기관과 은둔청소년 발굴-지원-연계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68(28.3%)	34(14.3%)	24(10.3%)
③ 은둔청소년의 발굴-지원-연계 등 개입 관련 기준 제시	40(16.7%)	50(20.8%)	31(12.9%)
④ 지역 내 연계기관 발굴 및 협력 강화	37(15.4%)	43(18.1%)	25(10.8%)
⑤ 은둔청소년 관련 사업 개발 및 홍보	35(14.6%)	16(6.8%)	27(11.6%)
⑥ 은둔청소년 발굴/연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수립 및 관리	17(7.1%)	25(10.5%)	27(11.6%)
⑦ 연계기관 정보,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 발굴/연계 관련 상담자 교육 실시	10(4.2%)	15(6.3%)	40(17.2%)
⑧ 기타	1(0.4%)	1(0.4%)	1(0.4%)

*기타: 전담 인력보충, 예산배정 등

은둔청소년 발굴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상담자는 ‘은둔청소년에 대한 감수성 및 상담/개입 전문성 향상’, ‘은둔청소년 및 부모(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탐색 및 적합한 연계기관 발굴 노력’, ‘소속기관 내 은둔청소년 발굴-지원-연계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등의 순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은둔청소년 및 부모(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탐색 및 적합한 연계기관 발굴 노력’은 3순위에서 가장 많이 응답(73건)하였지만 1순위에서 응답(92건)이 적어 최종적으로 2순위로 확인되었다.

서술식 의견으로는 ‘전담인력배치와 예산배정이 우선이라고 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둔형에 대한 이해, 개입방법에 대한 노하우 공유라고 생각한다’가 있었다.

<표 39> 은둔청소년 발굴을 위해 필요한 노력_상담자 차원

(n=240,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은둔청소년에 대한 감수성 및 상담/개입 전문성 향상	98(40.8%)	54(22.9%)	26(11.3%)
② 은둔청소년 및 부모(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탐색 및 적합한 연계기관 발굴 노력	12(5.0%)	38(16.1%)	73(31.6%)
③ 소속기관 내 은둔청소년 발굴-지원-연계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55(22.9%)	30(12.7%)	31(13.4%)
④ 연계기관 발굴 및 연계기관 실무자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21(8.8%)	43(18.2%)	27(11.7%)
⑤ 연계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자 이해	19(7.9%)	42(17.8%)	29(12.6%)
⑥ 은둔청소년 관련 법령 및 발굴/연계 행정 절차 숙지	10(4.2%)	24(10.2%)	30(13.0%)
⑦ 은둔청소년 관련 사업 개발 및 홍보 노력	25(10.4%)	5(2.1%)	15(6.5%)

설문 참여자들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은둔청소년의 연계를 위해 ‘은둔청소년 지원 법령·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유관기관별 상담/개입하는 은둔청소년의 유형과 제공 서비스 등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준 확립’, ‘국가/지자체 중심의 은둔청소년 사례 관리 및 연계망 구축·운영’, ‘학교, 청소년상담복지기관 등에 전문 인력 배치 및 예산 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가/지자체 중심의 은둔청소년 사례 관리 및 연계망 구축·운영’ 은 2순위에서 가장 많이 응답(57건)하였지만 1순위에서 1건도 선택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2순위로 나타났다.

서술식 의견으로는 ‘너무 사업을 확대하기 보다는 (은둔청소년을) 고위험군 청소년으로 보고, 맞춤형 관리 필요’ 가 있다.

<표 40> 은둔청소년 연계를 위해 필요한 노력_국가 및 지자체 차원

(n=240,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은둔청소년 지원 법령·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77(32.1%)	42(17.6%)	14(6.0%)
② 유관기관별 상담/개입하는 은둔청소년의 유형과 제공 서비스 등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준 확립	49(20.4%)	23(9.6%)	29(12.5%)
③ 국가/지자체 중심의 은둔청소년 사례 관리 및 연계망 구축·운영	0(0.0%)	57(23.8%)	38(16.4%)
④ 학교, 청소년상담복지기관 등에 전문 인력 배치 및 예산 배정	14(5.8%)	33(13.8%)	43(18.5%)
⑤ 은둔청소년 및 고위험군 청소년(상습 결석, 학교 폭력 피해 등) 발견 시, 학교, 청소년상담복지기관 등이 개입 및 연계하도록 강제성 및 권한 부여	26(10.8%)	33(13.8%)	20(8.6%)
⑥ 은둔청소년에 대한 정의 수립 및 국민 인식 개선	49(20.4%)	13(5.4%)	12(5.2%)
⑦ 학교 교사,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종사자 등 대상으로 은둔청소년 관련 교육 실시	7(2.9%)	17(7.1%)	34(14.7%)
⑧ 은둔(청소년) 전문기관 설치	9(3.8%)	12(5.0%)	21(9.1%)
⑨ 은둔(청소년) 전국 실태조사 및 국가 통계 관리	9(3.8%)	9(3.8%)	21(9.1%)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서 은둔청소년 연계를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는 ‘상담자 대상 은둔청소년 및 부모(보호자) 상담/개입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지역 내 연계기관 발굴 및 협력 강화’, ‘지자체, 상위기관과 은둔청소년 발굴-지원-연계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상위기관과 은둔청소년 발굴-지원-연계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은 1순위에서 가장 많이 응답(50건)하였지만 2, 3순위에서 응답 건 수가 많지 않아서 3순위로 확인되었다.

<표 41> 은둔청소년 연계를 위해 필요한 노력_기관 차원

(n=240,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상담자 대상 은둔청소년 및 부모(보호자) 상담/개입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42(17.5%)	46(19.3%)	53(23.0%)
② 지역 내 연계기관 발굴 및 협력 강화	42(17.5%)	48(20.2%)	32(13.9%)
③ 지자체, 상위기관과 은둔청소년 발굴-지원-연계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50(20.8%)	39(16.4%)	16(7.0%)
④ 은둔청소년의 발굴-지원-연계 등 개입 관련 기준 제시	38(15.8%)	34(14.3%)	26(11.3%)
⑤ 은둔청소년 발굴/연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수립 및 관리	21(8.8%)	33(13.9%)	29(12.6%)
⑥ 은둔청소년 관련 사업 개발 및 홍보	41(17.1%)	17(7.1%)	23(10.0%)
⑦ 연계기관 정보,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 발굴/연계 관련 상담자 교육 실시	5(2.1%)	20(8.4%)	51(22.2%)
⑧ 기타	1(0.4%)	1(0.4%)	0(0.0%)

*기타: 부모교육/부모상담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종사자는 은둔청소년 연계를 위해 상담자 스스로 ‘은둔청소년에 대한 감수성 및 상담/개입 전문성 향상’, ‘연계기관 발굴 및 연계기관 실무자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소속기관 내 은둔청소년 발굴-지원-연계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서술식 의견으로는 ‘전담인력과 예산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임’ 이 있었다.

<표 42> 은둔청소년 연계를 위해 필요한 노력_상담자 차원

(n=240,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은둔청소년에 대한 감수성 및 상담/개입 전문성 향상	92(38.3%)	47(19.7%)	26(11.2%)
② 연계기관 발굴 및 연계기관 실무자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31(12.9%)	53(22.3%)	33(14.2%)
③ 소속기관 내 은둔청소년 발굴-지원-연계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56(23.3%)	26(10.9%)	21(9.1%)
④ 연계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자 이해	21(8.8%)	52(21.8%)	28(12.1%)

⑤	은둔청소년 및 부모(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탐색 및 적합한 연계기관 발굴 노력	11(4.6%)	26(10.9%)	63(27.2%)
⑥	은둔청소년 관련 법령 및 발굴/연계 행정 절차 숙지	10(4.2%)	30(12.6%)	43(18.5%)
⑦	은둔청소년 관련 사업 개발 및 홍보 노력	19(7.9%)	4(1.7%)	18(7.8%)

은둔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심리·마음건강 상담(불안, 우울 등)(216명, 90.0%),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178명, 74.2%),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144명, 60.0%), 공동체 교류지원(동아리, 소모임, 자조집단 등)(91명, 37.9%), 취업·진로 상담 및 교육(취업준비, 기술교육 등)(82명, 34.2%), 학업 지속 지원(복교, 검정고시 등)(72명, 30.0%) 등의 순이었다.

<표 43> 은둔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중복 응답)

(n=240)

구분	명	비율(%)
심리·마음건강 상담(불안, 우울 등)	216	90.0%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178	74.2%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144	60.0%
공동체 교류지원(동아리, 소모임, 자조집단 등)	91	37.9%
취업·진로 상담 및 교육(취업준비, 기술교육 등)	82	34.2%
학업 지속 지원(복교, 검정고시 등)	72	30.0%
복지·생활 관련 안내 및 지원(생계급여, 수당, 치료비 지원 등)	71	29.6%
건강검진 및 치료	68	28.3%
문화·취미 지원(독서, 영화, 취미 등)	67	27.9%
기타	4	1.7%

*기타: 은둔형 외톨이 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위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됨, 생활습관 개선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은둔청소년이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방법은 상담자가 청소년의 집으로 방문(149명, 62.1%), 온라인 등 비대면 방법(104명, 43.3%), 기타 다른 장소에서 만남(75명, 31.3%), 청소년이 기관을 방문(64명, 26.7%)의 순이었다.

<표 44> 은둔청소년이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방법(중복 응답) (n=240)

구분	명	비율(%)
청소년이 기관을 방문	64	26.7%
상담자가 청소년의 집으로 방문	149	62.1%
기타 다른 장소에서 만남(카페, 공용 회의실 등)	75	31.3%
온라인 등 비대면 방법	104	43.3%
기타	1	0.4%

*기타: 야외 또는 타지역

은둔청소년은 혼자(200명, 83.3%),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84명, 35.0%), 부모님(보호자)과 함께(48명, 20.0%)의 순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였다.

<표 45> 은둔청소년이 선호하는 서비스 동행자(중복 응답) (n=240)

구분	명	비율(%)
혼자	200	83.3%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48	20.0%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84	35.0%
기타	1	0.4%

*기타: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은둔청소년 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은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172명, 71.7%), 자녀/청소년으로 인한 고민 등 개인 상담(164명, 68.3%), 부모와 자식 간 가족 상담(135명, 56.3%) 등으로 나타났다.

<표 46> 은둔청소년의 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중복 응답) (n=240)

구분	명	비율(%)
은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172	71.7%
자녀/청소년으로 인한 고민 등 개인 상담	164	68.3%
부모와 자식 간 가족 상담	135	56.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정보 제공	85	35.4%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 자조 모임	84	35.0%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 집단상담	58	24.2%
기타	1	0.4%

*기타: 부부상담

나. 현장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연구에서는 은둔청소년 현황을 토대로 발굴 및 지원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FGI)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현장에서의 은둔청소년 지원현황과 공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체계를 각각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 최종 은둔청소년 지원 프로세스(모형)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1) 개요

가) 연구참여자

FGI 모집에 있어서는 어떠한 참여자에서 표본을 선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본 연구주제에 있어서 심층적 토의로 관련 내용의 이해와 통찰을 얻기 위하여 생상적인 토의가 가능한 참여자를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으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은둔청소년 상담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표 47> 현장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정보

연번	그룹	소속	직위	성별	연령
A	그룹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여	30대
B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남	40대
C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여	40대
D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여	40대
E	그룹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여	40대

F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여	30대
G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여	50대
H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간제청소년 동반자	여	30대

나) FGI 질문지 작성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은둔청소년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반구조화된 형태의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 2인이 은둔청소년 관련 선행 연구와 사전 현황조사를 근거로 초안을 작성한 뒤 연구자 전원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확정된 질문지는 Krueger와 Casey(2000)이 제시한 질문방식에 따라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요질문, 마무리질문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의 편견이나 기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배제하고 연구참여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질문지 구성은 <표 48>와 같다.

<표 48> 현장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구분	질문내용
도입질문	1. 은둔청소년 정의 2. 은둔청소년 발굴 현황
주요질문	3. 은둔청소년 상담개입 4. 발굴 및 연계과정에서 성공적인 방안
마무리질문	5. 지역사회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체계 6. 고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연계 및 협업 방안

인터뷰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의 주제와 목적,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활용한 인터뷰 방법과 날짜를 미리 이메일로 전송하여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전에 질문지를 전달하여 토론주제와 관련된 개인의 생각을 미리 정리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2시간~2시간 반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위하여 연구 질문에 얽매이지 않고 진행하였다.

연구의 분석은 면접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여 면접 주진행자와

공동연구자 3인이 녹취록을 읽어가며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코딩하였다. 본 연구방법을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두달 간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2시간~2시간 반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위하여 연구질문에 얽매이지 않고 진행하였다.

2) 분석 결과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7개 범주, 21개 중범주가 도출되었으며, 53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내용은 <표 49>와 같다.

<표 49>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FGI 결과 생성된 범주

상위범주	중범주	하위범주
척도	개입 시 필요한 척도 필요	발굴 척도
		사례관리 척도
은둔청소년 특징	은둔수준 및 상태	정신건강문제
		제한적 대인관계문제(온라인)
		제한적 대인관계문제(오프라인)
		생활관리문제
	가정환경	가족관계
	은둔기간	6개월이상
		2년이상
		5년이상
연령대	특정하기 어려움	
센터의 은둔청소년 지원 실태	사정	후기청소년 중심
		사례개입 시도
	사례 배정	척도 사용 유무
		숙련된 상담자 중심
	개입 방법	팀 접근 중심
		보호자 개입 등 가정 방문을 통해
	지원 방향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은둔 특성 및 유형에 따른 접근
		은둔기간에 따른 접근

발굴	센터 주도로 자체 발굴	자체발굴 어려움
	센터로 의뢰되어 발굴	부모를 통해
		1388전화상담을 통해
	발굴에 도움이 된 부분	지역사회를 통해
민간부문의 유기적 발굴 시스템 청소년기관 홍보를 통한 공공부문의 유기적 발굴 시스템 구축		
지원(개입)	성공적인 지원방안	지지적인 가정 환경
		지역사회 내 인프라 연계
		은둔청소년 맞춤형 센터 프로그램
	유관기관의 전문적인 서비스 연계가 필 요한 경우	정신병리적 접근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상담 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
	지원 시 어려운 점	만남을 지속하기 어려움
		사례관리사 소진이 심함
은둔관련 정보 및 전문성 부족 전문성 부족 지역 내 인프라 등 자원 부족		
종결	종결의 기준	회기에 따른 종결
		성공경험에 따른 종결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 형태의 종결
	종결기준의 모호함	
사후관리	사후 모니터링	
앞으로 필요한 은둔청소년 지원체계	은둔에 대한 인식 필요	부모인식 부족
		지역자치단체의 인식 부족
		지역사회 내 인식 부족
	거점기관 필요	전담 인력 배치
		상담자당 적정 사례수 관리
		종사자 교육 실시
	정책 지원 및 수립 필요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
		예산지원
		촘촘한 발굴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업 필요	공공과 협업
		전문가의 협업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가) 척도

척도 영역은 센터 종사자들이 은둔청소년 개입 시 척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범주들로 구성되었다. ‘개입 시 필요한 척도 필요’의 중범주 아래에 ‘발굴 및 연계 척도’, ‘사례개입 척도’의 하위범주 2개로 도출되었다.

(1) 개입여부를 판단하는 척도 필요성

① 발굴 및 연계 척도

센터 종사자들은 외부에서 은둔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은둔청소년을 선별하는 척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센터 자체 발굴보다는 외부 발굴이 더 많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체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래도 발굴에 조금 더 관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상복B)”

“외부 유관기관 종사자분들이 저희 쪽으로 연결을 하실 때 은둔형인지 아니면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인지 이런 구분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청상복E)”

② 사례개입 척도

해당 청소년의 호소문제가 은둔인지를 판단하고 은둔과 함께 복합적인 위기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척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초심상담자의 경우는 은둔인지 그게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초심 상담자나 사례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청상복D)”

나) 은둔청소년 특징

은둔청소년 영역은 센터 종사자들이 개입한 은둔청소년에 대한 특징들로 구성되었다. ‘은둔수준 및 상태’, ‘가정환경’, ‘은둔기간’, ‘연령대’로 4개의 중범주와 10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1) 은둔 수준 및 상태

센터 종사자들이 개입한 은둔청소년은 은둔수준 및 상태에 따라 다양한 문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주요한 네 가지의 분류가 제시되었다.

① 정신건강문제

FGI 참여자가 경험한 은둔청소년은 은둔과정에서 경계선, 우울, 불안, 조현, 함구증 등 정신건강 등의 고위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우울이나 불안, 정신증을 갖고 있거나 대인기피증 진단을 받고 은둔이 더욱 심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하지 않는 순수히 은둔형인 친구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청상복E)”

“약물 치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해, 자살 충동, 망상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고위기 청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상복D)”

“은둔이 시작되면서 침묵까지 강화되어 선택적 함구증이 같이 오기도 (후략) (청상복B)”

② 제한적 대인관계문제(온라인)

은둔청소년은 외부와 의사소통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SNS를 하면서 사회적인 소통망이 있는 은둔형 청소년이 있었고요 (청상복C)”

“외부 세상과 단절되고 싶어서 혼자 게임만 많이 하거나 (중략)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만나는 게임 커뮤니티 아니면 취미 공유하는 방 등 관계 형성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꿈드림B)”

③ 제한적 대인관계문제(오프라인)

센터 종사자가 개입한 은둔청소년은 타인과는 소통을 하지 않지만, 부모님 등 특정인 하고만 소통하는 제한적인 대인관계의 특징이 제시되었다.

“부모님하고만 대화를 하고 교사나 다른 성인과는 이야기를 안하고요 (청상복A)”

④ 생활관리문제

FGI참여자가 개입한 은둔청소년 중 많은 경우는 주로 집에서만 고립된 생활을 하며 PC방, 학교 등 제한적인 외출을 하는 상태라고 보고했다.

“집 밖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pc방 외에는 외출을 하지 않았던 (후략) (청상복D)”

“집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기 방 외에는 나가지 않는 경우였고 조금 괜찮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나 학교는 겨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청상복E)”

(2) 가정환경

센터 관계자가 개입한 은둔청소년은 폭력적이거나 복잡한 가정환경과 가족관계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전에는 아버지가 폭력적이었는데 (중략) 신체발달이 이루어지고 키가 크면서 남학생이 더 권력자가 되어 버리고 (중략) 5살 터울 나는 동생을 그렇게 때렸어요 (청상복C)”

“아버지에게 한 몇 년 가정폭력을 좀 당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청상복B)”

“가정환경이 좀 복잡한 친구들이 저희는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꿈드림A)”

(3) 은둔 기간

은둔청소년의 은둔 기간은 6개월부터 5년 이상 기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가족 안에서 은둔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 은둔의 기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① 6개월 이상

“평균으로 봤을 때는 6개월 이상 은둔이었고 (청상복E)”

② 2년 이상

“중학교 3학년 정도 그러니까 15세 경이었는데 은둔이 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고요 2년정도 집에서 지켜보다가 상담이 의뢰가 된 케이스가 있어요 (청상복C)”

③ 5년 이상

“만났을 때가 고등학생쯤이었는데 이미 그때가 한 5년, 6년 정도 은둔이 된 상태였어요. (청상복B)”

④ 특정하기 어려움

“청소년들은 사실 그 (은둔이 유지된) 기간을 저희가 유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꿈드림A)”

(4) 연령대

연구참여자가 개입한 은둔청소년은 주로 후기청소년 연령대에 분포하고 있었다. 은둔의 시작시점은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이었지만, 실제로 은둔 행동이 시작되는 경우는 후기청소년에 발현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① 후기청소년 중심

“의뢰된 청소년들은 18살에서 21살, 이렇게 후기 청소년 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꿈드림B)”

“최근에 만났던 친구들은 거의 후기 청소년들이 좀 많았습니다. 후기 청소년 중에서도 자퇴를 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청상복D)”

다) 센터의 은둔청소년 지원 실태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은둔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사정’, ‘사례 배정’, ‘개입방법’, ‘지원 방향’으로 4개의 중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가 확인되었다.

(1) 사정

센터에서는 은둔청소년을 발굴하였을 때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사정 과정을 진행한다. 사례개입시도, 척도사용유무 두 가지의 하위범주가 제시되었다.

① 사례개입 시도

청소년상담자는 센터에 연계된 사례 모두에 대하여 개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의뢰된 건에 대해서 청소년 본인이 굉장한 강한 거부감이 있어서 ‘절대 상담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일단 개입 시도를 하죠 (청상복E)”

“은둔형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만약에 저한테 이제 사례 배정이 되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잡지 않고 일단 저는 무조건 가는 편이에요 (청상복B)”

② 척도 사용유무

은둔청소년에 맞는 적합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사정척도는 없는 실정이었으며 고위기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개입을 위해서 척도를 사용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한 적은 없어요 (꿈드림A)”

“은둔형 청소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척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청상복C)”

“따로 척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위기 스크리닝이나 간단한 YSR이라든지 (중략) 후 시라도 자해라도 했을 경우에는 우울, 절망 척도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청상복D)”

(2) 사례배정

현장에서는 은둔청소년의 위기도, 서비스 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례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숙련된 상담자 중심의 배정

FGI참여자는 은둔청소년의 경우 이전에 이미 상담의 경험이 많거나 고위험군의 대상자이므로 경력자 중심의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했다.

“고위험군 아이 같은 경우에는 1~2년 차 선생님들한테 맡길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상담을 엄청 받았던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중략) 3~4년 경력이 되시는 선생님들한테 사례가 배정돼서 좀 집중 관찰과 관리를 하는 거죠 (꿈드림C)”

“고위기 청소년들은 종사자들에게 너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역사회에서 연계된 아이들은 팀장이 관리를 하려고 해요 (꿈드림A)”

② 팀 접근 중심

복합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 연계되어있는 유관기관과 함께 개입하거나 청소년의 욕구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팀접근 중심의 사례관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단독으로 발굴돼서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보통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담당자를 배정하긴 하지만 담당자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고 팀 전체적으로 사례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접근할지 정합니다. (청상복B)”

“학습 지원, 취업 지원 그런 식으로 담당자별 역할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는 이런 프로그램 제공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먼저 제안을 주기도 하고요 (꿈드림B)”

(3) 개입방법

현장에서는 은둔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개입을 시도가 제시되었다.

① 보호자 개입 등 가정방문을 통해

은둔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개입을 시도하거나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는 등 은둔특성상 내담자 중심이 아닌 가족단위로 개입하고 있었다.

“3회 정도 방문을 했는데도 반응이 없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보호자 쪽으로 포커싱을 전환하는 편입니다. (청상복C)”

②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은둔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원체계와 협업하여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만으로는 안 되니까 지역사회에 연계를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직접 통합 사례 팀 하고 의의를 해서 연계를 한 적도 있고요 (중략) YC를 통하거나 행정복지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계속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꿈드림A)”

“필요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구에 있는 통합사례관리팀에도 접촉을 하든, 그러니까 저희기관에서 좀 벅찬 친구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기관, 사회복지 기관이든지 같이 협업하면서 진행을 하면 훨씬 힘이 덜 들어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청상복E)”

(4) 지원 방향

현장에서는 은둔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간, 특성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개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① 은둔 특성 및 유형에 따른 접근

센터 종사자가 개입한 은둔청소년은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기가 힘든 특징이 있어 환경 전반적인 파악이 중요했으며 그 특성에 맞는 목표설정 및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고 했다.

“저는 은둔형 외톨이는 은둔이라는 ‘은둔’ 유형 하나의 친구들로 접근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꿈드림A)”

“은둔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서 접근을 할 때 그 친구들의 어떤 환경적인 거를 먼저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드림B)”

“은둔형 같은 경우는 상담 목표를 크게 잡지 않아요 버스 타고 혼자 시내 한 번 나와보기, 중간 지점에서 상담자 한 번 만나기 이런 정도로 했을 때 그걸 두세 번을 하면 그 성공 경험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지지하고 보호자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청상복C)”

② 은둔기간에 따른 접근

은둔을 지속한 기간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과 그 간의 해결 노력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은둔기간에 따른 접근도 고려한 접근을 하는 것을 제시되었다.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도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정 문제라든지 자기 문제를 얼마만큼 방치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얼마만큼 투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상복A)”

라) 발굴

은둔청소년 사례를 주로 발굴하는 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센터 주도로 자체 발굴’, ‘센터로 의뢰되어 발굴’의 2가지 중 범주와 4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1) 센터 주도로 자체 발굴

청소년상담복지현장에서는 은둔청소년을 발굴하고자 센터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은둔청소년의 특성상 전문기관 등에 자신의 문제 상태를 밝히고 상담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그 어려움 중에는 지역사회와 네트워킹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처음부터 청소년동반자선생님이 접촉을 해서 상담이 연결된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꿈드림A)”

“거의 대부분 외부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가 많고 자체 발굴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청상복B)”

“자체로 발굴을 하게 되면 정말 지역사회랑 네트워킹이 잘 되고 민간 자원이랑 센터가 많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센터에서 1388 지원단 활성화가 어려운 것처럼 자체 발굴은 조금 어렵습니다. (청상복E)”

(2) 센터로 의뢰되어 발굴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외부에서 은둔청소년 사례에 대한 서비

스 지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① 부모를 통해

은둔청소년의 부모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은둔청소년을 지켜보고 센터를 통해 의뢰되기도 하였다.

“어머니께서 저희 센터로 신청을 (하셨는데) (중략) 이 친구는 가정 안에서는 움직이는데 일단은 등교 거부가 있었고 이전에 따돌림 경험이 있었던 친구였고요 (청상복A)”

② 1388 전화상담을 통해

직접적인 센터 방문이 아닌 1388 전화로 의뢰되기도 하여 은둔가족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은둔청소년의 부모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은둔청소년을 지켜보고 센터를 통해 의뢰되기도 하였다.

“부모님이 대부분 요청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1388로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계속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 상담받을 수 있느냐, 후시 찾아올 수 있느냐’ 라고 (청상복D)”

③ 지역사회를 통해

주로 의뢰되는 형태로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를 밀접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 일선 학교 및 교육청, 경찰서 등 다양한 유관기관을 통해 의뢰되고 있었다.

“시청, 희망복지단 사례 관리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이 돼서 저희한테 의뢰한 경우도 있었고요 (청상복B)”

“그 외에는 대부분 학교라든지 아니면 저희 기관의 실무위원회가 사례 논의를 하다가 연결돼요 (청상복E)”

“엄마가 (중략) 애를 그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애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갔더니 아이가 있는데, 은둔인 것 같다고 저희 쪽에 의뢰된 케이스가 있기도 합니다. (꿈드림 C)”

(3) 발굴에 도움이 된 부분

위의 중범주에서 제시되었듯이 은둔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를 통해 주로 의뢰되는데, 발굴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는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① 민간부문의 유기적 발굴 시스템

은둔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연계하기 위한 협의체를 정기 운영하는 것이 도움되었다.

“꿈드림에서 별도로 꿈드림 지역 협의체를 운영을 했어요 사회복지사들 총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경찰서. 저희는 안전이 있건 없건 간에 학교 밖에 대한 설명을 꾸준히 드려서 그런 사례들이 연결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꿈드림C)”

② 청소년기관 홍보를 통한 공공부문과 유기적 발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상담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은둔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의 연결이 되는 유기적인 발굴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저희가 꼭 가는 곳은 시청, 경찰청, 시의회 등 이에요 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꿈드림C)”

“지역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 센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거에 6개월 이상 좀 시간을 써야지 돼요 (중략) 우리기관을 알고 지자체 담당 부서가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거다’ 라고만 생각하면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우선 연락 해서 물어보자 하도록 협력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 담당자 바뀌면 다시 우리기관을 알리고 설명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청상복C)”

마) 지원(개입)

은둔청소년의 지원(개입)단계에서 주요하게 작용하였던 성공요인과 센터 차원의 한계를 느꼈던 지점, 어려운 점에 대한 문항에서는 3가지 중 범주와 10개의 하위범주가 추

출되었다.

(1) 성공적인 지원방안

센터 종사자들은 은둔청소년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방안으로 4가지를 언급하였다.

① 지지적인 가정환경

FGI참여자들은 센터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청소년이 속한 가족체계의 협조가 수반될 때 성공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엄마가 열성적이셨어요 어떡하든 그 아이 데리고 나와서 상담실 한 곳을 차지하고 (중략) 색깔공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엄마도 데리고 나오고 (꿈드림C)”

“저희는 성공한 케이스는 사실 가정 내에 지지자원들이 있었을 경우고요 (꿈드림A)”

② 지역사회 내 인프라 연계

생계지원 등 은둔청소년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연계하였을 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친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하는 것을 알리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좀 뭔가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들도 있다 보니 병행해서 상담이 진행이 됐을 때 좀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상복D)”

“동반자 선생님보다는 세상 소통 카드가 있는데 정말 그 예산을 배부하고 있을 때는 부모님이든 청소년이든 참여를 하시게 되더라구요 (청상복A)”

③ 은둔청소년 맞춤형 센터 프로그램

센터 차원에서 은둔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효과적이었던 내용은 지속적인 개입시도와 충분한 기다림, 욕구 우선순위 파악,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났다.

“기다리고 두들겨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1년이 걸릴 수 있고 저희는 그래서 아이 들한테 되게 꾸준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안 듣는다고 해도 저희는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꿈드림C)”

“가장 좋은 게 멘토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어떤 그런 멘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를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데리고 나가서 (중략) 멘토링 프로그램 지금 2년째 하고 있 고 지금은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청상복E)”

“처음에 초기 상담을 해도 어떤 서비스도 원하지 않고 부모님 때문에 나왔다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이들이 그래도 욕구를 갖고 있는 거는 검정고시예요 (꿈드림A)”

(2) 유관기관의 전문적인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센터 종사자들은 은둔청소년을 개입할 때 센터차원의 서비스만으로 부족한 경우 외 부기관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정신병리적 접근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은둔청소년의 경우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의뢰가 되면 솔직히 저희 혼자 감당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저희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꿈드림B)”

“은둔형으로 있는 애들 중에서 또 자해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건강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자꾸 저희가 요청을 하니깐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 예요 (청상복B)”

②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은둔청소년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 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일시적인 생활비 지원도 돼주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게 차라리 공론화를 해서 그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울타리를 좀 저희는 더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꿈드림C)”

“이 아이가 가정이 열악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병원비나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게 안 되다 보면 저희가 제일 많이 활용했던 것이 청소년 안전망 회의 있잖아요 (꿈드림B)”

③ 전문 심리상담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

은둔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전문상담 외 의료·보건 및 사회·경제적인 접근이 함께 되는 사례관리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상담은 필요한데 심리전문상담만으로는 전부 다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관 기관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온전히 사례관리사의 몫으로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지자체 사례관리사, 민간 자원으로서 멘토하시는 분들을 연결하는 거는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청상복D)”

(3) 지원 시 어려운 점

은둔청소년을 지원하는 어려움으로는 4가지의 하위범주가 나타났다.

① 만남을 지속하기 어려움

은둔청소년은 사례가 발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만남과 접촉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설득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에 의해서 저희가 상담을 개입하게 되면 사실 한 번 딱 오고 그다음부터 연락이 두절돼요 전혀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후략) (꿈드림A)”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고 목소리도 못 들어봤고 어머님이 오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가서 문을 두들기면 반응이 없고 대신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요 저 사람 내보내라고 (청상복B)”

“어느 때는 아버지가 방문까지는 열어줘서 들여다 보면 이불 뒤집어 쓰고 답답한데도 안 나와요 문 열고 문턱에 앉아 있다가 40분만 있다가도 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얘기를 나누면서 근데 반응이 없어요 (청상복C)”

② 사례관리사 소진이 심함

은둔청소년은 방문 개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간, 체력적인 소모가 큰 사례이며 해당 청소년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소진이 심하다고 나타났다.

“에너지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거리적인 한계도 있어요 저희는 한 명을 위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상담과 달리 고위기 청소년인 은둔형은 훨씬 더 소진이 좀 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청상복C)”

③ 은둔관련 정보 및 전문성 부족

FGI참여자들은 은둔청소년 특성에 대한 정보, 특성에 기반한 개입계획 수립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 실제 대상자들한테는 이런 계획들이 심적으로 뭔가 와 닿는지는 사실 저도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특성에 대해서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상복A)”

“양육 태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단 사실 잘 몰랐던 것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 활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긴 했어요 (꿈드림A)”

④ 지역 내 인프라 등 자원 부족

은둔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개입해야하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인지도 부족, 인프라 편차 등의 사유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했다.

“은둔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오히려 다른 고위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복지관에서 뭘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애기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은둔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청상복B)”

“지역편차가 커서 멘토링이 지역적으로도 좀 적기도 하고 (중략) 멘토링이 너무 필요한데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청상복C)”

“지식 자원 자체가 결여됐거나 아니면 좀 약할 경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꿈드림 A)”

바) 종결

은둔청소년 사례 종결과 관련한 질문에는 2개의 중범주와 5개 하위범주가 생성되었다.

(1) 종결의 기준

청소년 상담복지현장에서는 은둔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기준으로 개입 종결을 진행하고 있었다.

① 회기에 따른 종결

일반적으로 동반자를 통한 사례개입의 경우 동반자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정해진 회기 및 기간에 도달한 청소년의 사례를 종결하고 있었다.

“시간제 동반자니까 회기가 거의 정해져 있는 편이잖아요 어쨌든 회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더 못 만나고 갔던 경우가 많습니다. (청상복B)”

“3개월이라는 동반자의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 사례수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회기가 다 찼기 때문에 종결하는 그런 사태도 빚어지기도 해요 (청상복D)”

② 성공경험에 따른 종결

은둔청소년의 특성 상 은둔 상태를 벗어나는 경험을 목표로 설정하여 해당 성과를 달성한 경우 종결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청소년이 이제 바깥으로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게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종결

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이라도 밖에 나온 경험 있잖아요 (청상복B)”

③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 형태의 종결

센터 종사자들은 은둔청소년에 개입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센터 차원의 지원을 종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 등 유관기관에서 주 사례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종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은둔형도 고위기 청소년으로 보고 저희도 접근을 하고 있어 정신보건센터나 복지관에 연결하고 함께 종결이 필요하다고 봐요 (청상복D)”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을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를 안 가는 은둔을 할 경우에는 학교 복귀를 하고 한 달 정도는 두고 보는 편이에요 (청상복E)”

④ 종결 기준의 모호함

은둔의 경우 종결이라는 특징을 목표로 잡기에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여 종결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기관을 연계한다는 게 이제 좀 주기적으로 돌아보고 아이를 좀 들여다보고 예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연락해라라는 어떤 여지로 오픈해놓는 거지 클로징의 개념을 가지지는 사실 못하는 것 같아요 (청상복C)”

(2) 사후관리

고위기 청소년은 센터에서 전문상담 개입 후 다시 학교 혹은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결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후 관리가 됐든 회기 연장이 됐든 한 달 정도는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학교에 위클래스나 연결시킬 수 있으면 연계하고 그게 어렵다면 이제 부모님과 학교의 상담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종결을 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청상복E)”

사) 앞으로 필요한 은둔청소년 지원체계

은둔청소년 사례 종결과 관련한 질문에는 4개의 중범주와 12개 하위범주가 생성되었다.

(1) 은둔에 대한 인식 필요

중범주에서는 3개의 하위범주가 제시되었는데, 청소년의 은둔상황을 빠르게 알 수 있는 부모의 인식에서 시작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자체의 인식,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은둔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필요가 제시되었다.

① 부모의 인식 부족

“은둔형 청소년이라는 거에 대해 부모님들이 좀 빨리 이해를 높이면 아이들이 은둔형 청소년이라는 어떤 용어에 개입되기 전에 아이들이 어떤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부모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꿈드림A)”

② 지역사회단체의 인식 부족

“공무원 분들 중에서 상담 쪽이나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은둔형이고 몇 달 동안 나오지 않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강제로 끄집어내면 되지 그게 어렵다고 이제 그렇게 하나’ 라고 반응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들이 연수를 통해서 하든 그 실무자에게 은둔의 특성을 이해하는 그런 교육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상복B)”

③ 지역사회 내 인식 부족

“은둔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은둔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도움이 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도 자체가 너무 낮아서 편견이 생기기도 하고요 (꿈드림C)”

(2) 거점기관 필요

전문가들은 거점기관 은둔청소년을 담당할 수 있는 거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은둔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전담인력 배치와 담당사례건수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은둔청소년을 상담하는 전문성교육, 매뉴얼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① 전담인력 배치

“저는 사실 전문 상담은 전담 인력 전담 기관에서 인력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전담 인력은 그야말로 이제 사례를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떤 친밀감이나 동기화를 시킬 수 있는 분들이 통합 사례 관리자 같은 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드림A)”

은둔청소년을 상담하는 전문가들은 위기청소년을 상담할 때는 상담자 소진이 크며, 은둔특성상 다양한 연계가 필요로 하기에 1-2사례정도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② 상담자당 적정 사례수 관리

“상담자의 역량이나 또 어떤 심리적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많아봤자 한 사례정도 (청상복D)”

③ 종사자 교육실시

“두 번째는 이제 종사자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은둔형 청소년이 됩니까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쉽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정의라든지 도대체 몇 개월을 은둔해야지만 이게 은둔형이고 은둔의 뜻은 또 뭘지 구체적인 이제 상담 개입 매뉴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상복B)”

(3) 정책 지원 및 수립 필요

정책지원과 수립 필요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정책과 법제정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청소년연령대에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후기청소년 청년의 나이까지 지원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①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

“정책 수립이 1번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지만 이게 이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어떤 지침이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게 정책이 있으면 개입하기가 훨씬 더 이제 쉬울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명분 같은 것들도 이제 생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부분도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상복B)”

“내담자가 24세 이후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보니 발달단계에 거쳐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민간 자원이든 연결의 어떤 정책들이든 이게 조금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리고 부모든 청소년이든 조금 더 이제 열려 있게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상복D)”

② 예산지원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형태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지자체에서 사실 청소년을 더 꺼려하는 이유는 사실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하게 그냥 하나 탁 주면서 거기 안에서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하면은 좀 더 좋은데 요것도 지침에 요것도 지침에 거기에 맞춰서 다 맞춰서 하려다 보니 목은 많고 그리고 사업비는 절끔 많고 (청상복D)”

“표면상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결국은 청년이 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꿈드림A)”

③ 촘촘한 발굴시스템 구축 필요

은둔청소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교육청 연계시스템구축을 통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제가 알기로 학교 다니는 은둔형 청소년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은둔형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많기도 하고 그중에서 좀 고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좀 아까 다른 선생님 말하신 것처럼 사전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몇 번 경

힘을 한 것 같습니다. (꿈드림B)”

“이제 은둔형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든 적어도 1~2주 이상 그렇게 이제 학교를 안 왔을 때 의무적으로 이제 경찰이 개입을 하고 어떻게든 빨리 발굴을 하는 게 최대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상복B)”

(4) 유관기관 협업 필요

전문가들은 은둔청소년의 특성상 공공, 전문가그룹과의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가정방문을 할 경우 상담자 보호를 위한 관할경찰과 동행과 같은 공공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① 공공과 협업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친구도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상담자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관할 지구대 협조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같이 지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상복E)”

② 전문가 협업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멘토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또 임상심리사가 해야 되는 역할들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WEE센터의 모형처럼 상담자, 사례 관리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렇게 좀 한 축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서 다양하게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모형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청상복D)”

③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은둔청소년의 경우 사례관리사의 도움이 필요로 한 부분이 제시되었는데, 전문상담과 청소년 욕구와 문제에 필요한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가 될 수 있는 청소년안전망의 활성화 부분이 강조되었다.

“실제적으로 상담복지센터가 중심이 되는 건 맞는데 사례관리사의 도움도 반드시 좀 필요한 것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만으로 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계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신질환이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중략) 추후에도 비행을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서 상담은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에 사례 관리로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청상복D)”

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 포커스그룹 인터뷰

1) 개요

가) 연구참여자

지역사회에서 은둔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발굴, 지원 및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은둔청소년 및 가족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농어촌·대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청소년상담복지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 대상자 선정 시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인 편의표본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면접 진행 시 참여의사 확인 및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고 이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50>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FGI 참여자 정보

구분	소속	직위	성별	연령
A	○○○구청	사회복지직	여	40대
B	○○○구청	통합사례관리사	여	50대
C	○○○구청신건강복지센터	부팀장	여	20대
D	○○○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여	40대
E	○○군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여	20대
F	○○읍	통합사례관리사	여	50대
G	○○○○○○상담센터	수퍼바이저	여	40대
H	○○○○○○상담센터	수퍼바이저	여	40대

나) FGI 질문지 작성 및 자료수집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 유입되는 은둔청소년의 유형, 은둔청소년 발굴-개입-종결 현황, 은둔청소년 발굴지원 체계에 대한 제언 등을 탐색하고자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 2인이 은둔청소년 관련 선행 연구와 사전 현황조사를 근거로 초안을 작성한 뒤 연구자 전원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확정된 질문지는 Krueger와 Casey(2000)이 제시한 질문방식에 따라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요질문, 마무리 질문의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방형 질문방식으로 구성하였다.

<표 51>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FGI 질문지

구분	내용
도입질문	· 은둔청소년의 정의 - 발굴(의뢰)되는 은둔청소년의 수준, 상태
주요질문	· 은둔청소년의 발굴 - 발굴 현황 및 발굴 노력 · 은둔청소년 개입 및 지원 사례 - 지원 내용,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 은둔청소년의 종결 - 종결의 기준, 종결 후 사후관리 등
마무리질문	·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 체계 제언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FGI는 2023년 9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대면 형식으로 약 180분간 실시되었으며, 총 9명이 참여하였다. 면접 진행은 교육학박사 1인과 사회복지학 박사 1인이 주도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상담 전공 석사 졸업 이상의 3인도 참가하였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FGI는 실시 전 참여자 전원에게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FGI 전체 과정이 녹음되었고, FGI가 끝난 후 축어록 형태로 전사되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2) 분석 결과

전사된 자료는 전체 연구진이 축어록을 읽어가면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주제별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의미단위들을

유사성, 구별성,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면서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지와 각 의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범주화 되었는지 살펴보고(Morgan, 1997) 최종 수정하였다.

은둔청소년 발굴, 지원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의 FGI를 진행하고 분석한 결과, 총 7개의 상위범주, 13개의 중범주, 32개의 하위범주가 생성되었다.

<표 52>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FGI 결과 생성된 범주

상위범주	중범주	하위범주
척도	개입 시 필요한 척도 필요	발굴 척도
		사업 대상자 선정 척도
은둔청소년 특징	은둔수준 및 상태	정신건강문제
		외부와의 고립/단절
		생활관리문제
은둔청소년 지원 실태	사정	개입방향 결정
	개입 방법	지자체에서 주사례관리
		보호자 개입 등 가정 방문을 통해
		연령 구분없이 개입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발굴	지역사회를 통한 사례 발굴	지자체 복지서비스에 은둔청소년 자발적 유입
		통합사례관리자 행정복지센터 및 희망복지단
		일선학교 및 교육청
		1388지원단 등 지역 내 사회 자원
지원(개입)	성공적인 지원방안	지지적인 가정 환경
		은둔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시 어려운 점	국가보장 체계에서 소외로 개입의 한계
		개인의 역량에 따라 사례 진행/성공 여부가 결정
		만남을 지속하기 어려움
		사례관리사·상담자 소진이 심함
		은둔관련 정보 및 전문성 부족

종결	종결의 기준	회기/기간에 따른 종결
	사후 관리	사후 모니터링
앞으로 필요한 은둔청소년 지원체계	은둔에 대한 인식 필요	부모인식 부족
		지역사회 내 인식 부족
	거점기관 필요	
	정책 지원 및 수립 필요	세대 구분 없는 전연령대 은둔자 개입
		예산지원 필요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개입 의무화
		촘촘한 발굴시스템 구축
새로운 사업명		
유관기관 협업 필요	은둔청소년을 만나는 현장에서의 협업	

가) 척도

척도 영역에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은둔청소년 개입 시 척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범주들로 구성되었다. 중범주 ‘개입 시 필요한 척도 필요’ 에 하위범주 2개로 정리되었다.

(1) 발굴 척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잠재된 은둔청소년(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서는 척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아이들 전체 다 심리 검사를 해요. (중략) 중학생이 처음에 들어가서 하는 그 척도 검사 안에 은둔형 검사 도구가 몇 개 좀 들어갔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 미리 좀 걸러내어서 뭐 이렇게. (지자체F)”

(2) 사업 대상자 선정 척도

특정 사업의 대상자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수혜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척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은둔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연령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라서 이 사업 방향이 엄청 달라지더라고요 (중략) 청년 같은 경우에도 이 정의에 따라서 일 자리로 갈 것이냐, 복지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방향이 엄청 달라지더라고요 (지자체A)”

나) 은둔청소년 특징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개입한 은둔청소년에 대해서는 ‘은둔수준 상태 및 상태’의 중범주 아래에 3개의 하위범주가 생성되었다.

① 정신건강문제

FGI 참여자가 경험한 은둔청소년은 자해/자살 시도, 선택적 함구증 등의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 상담받으면서 좀 좋아지려고 했더니 또 새벽에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어가지고 참 이게 어려운 은둔형이 특히 또 표현을 안 해서요 (지자체E)”

② 외부와의 고립/단절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개입한 은둔청소년 중 많은 경우에는 고립된 생활을 하며, 한정된 공간 안에서 살고 있었다. 은둔 이전의 원만했던 사람들과도 은둔이 지속되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엄마 친구도 이제 지금 제가 전화하면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해서 전화하지 마세요’. (중략) 부모님 사망하고 나서 이제 외부와의 관계가 다 단절된 상황이었어요 (지자체F)”

“집에 이제 가족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다 일을 나가시는데 집에서 가족이 한 명도 없으면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요 집 안에서도 진짜 은둔형인 거. (지자체E)”

③ 생활관리문제

은둔청소년은 식사와 청결 유지 등 기본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게임 과몰입, 부적절한 생활비 지출 등 일상생활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혼자서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밥 먹여야 되고 씻겨야 되니까 다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안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후략) (지자체E)”

“집 안에서 다 시켜 먹고 하면서 게임 뭐 쓰고 집에 가면 박스가 진짜 택배 박스가 많아요 (중략) 되게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인해서 이제 편한 거죠 집에서 시키기도 되고 다 되니까 그래서 점차 점차 (후략) (지자체F)”

다) 은둔청소년 지원실태

소속기관에서 현재 은둔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정’, ‘개입방법’ 으로 2개의 중범주와 5개의 하위범주가 확인되었다.

(1) 사정

은둔청소년이 기관으로 유입되었을 때 직접 개입 여부와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정 과정을 진행한다.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전문 서비스가 은둔청소년에게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 척도를 사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입 방향과 정도를 결정한다.

“저희 기관에서 개입을 했을 때는 간이 척도로 임상군 정도를 분류를 하고요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치료 연계를 하고 이제 외래 동행을 가거나 이제 종합심리 검사를 또 지원을 하거든요 (유관기관C)”

(2) 개입방법

① 지자체에서 주사례관리

지자체를 통해 발굴된 은둔청소년은 위험도와 필요서비스에 따라서 전문기관으로 연계가 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한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차피 동으로 이제 기본이 접수 창구지만 동에서 그 사례를 딱 들어보고 약간 고난도고 그러면 바로 저희 희망팀으로 연계가 되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은둔 사업도 하고 고난도 통합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후략) (지자체B)”

② 보호자 개입 등 가정 방문을 통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은 은둔청소년에 대한 직접 개입 외에도 은둔청소년의 부모 등 가족에게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희 센터에 상담을 오는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다가 은둔청소년 있거나 이러면 함께 발굴해서 (중략) 은둔 이웃 청소년을 가진 부모님들 대상으로 집단 활동을 했었어요 (중략)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내가 그때 맞벌이로 바빠 가지고 애를 살피지 못했다는 것 내가 어떤 방법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가라도 했었을 건데 후회하시고 (후략) (유관기관D)”

③ 연령 구분 없이 개입

상담복지 현장에서는 전 연령대의 은둔청소년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가 사실 큰 틀에서, 왜냐하면 통합 사례관리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딱 특수한 케이스를 포커스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통합 사례 관리 안에 이제 이런 청소년 대상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대상이 있는 거고 (후략) (지자체A)”

④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은둔청소년에 따라 맞춤형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사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발견된 은둔청소년에게 개입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사례하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 줘야 될 그게 더 효과가 나타나겠다 싶으

면 우리 연합회의를 하죠 해서 아니면 누가 주사례 관리를 하고 우리가 옆에서 사이드로 도와야 될지, 그리고 사례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지자체F)”

“기본적으로 저희 여기 청소년 상담센터나 이런 데도 많이 의뢰하고요 그렇지않고 병원으로 바로 가야되는 아이들은 저희가 또 병원으로 저희가 거의 이제 정신건강복지 센터에도 이제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상담을 먼저 해보고(후략) (지자체B)”

라) 발굴

은둔청소년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 유입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통한 사례 발굴로서 4개의 하위범주가 추출되었다.

① 지자체 복지서비스에 은둔청소년 자발적 유입

청소년상담복지 현장 전문가의 FGI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은둔청소년이 전문기관 등에 자신의 문제 상태를 밝히고 상담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단, 은둔청소년이 필요로 할 만 한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 스스로 유입되는 청소년 중에서 은둔청소년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희는 자해흔적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신청서에서 보면 자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은둔형이 꽤 또 많더라고요 (중략) 뭔가 ‘은둔형 사업’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안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략) 좀 두루뭉술하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데 은둔형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오히려 더 은둔형을 잘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자체E)”

② 통합사례관리자, 행정복지센터 및 희망복지단

지역 내 사회복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지자체를 통해서 은둔청소년이 발굴되고 있었다.

“구청을 통해서 연계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진짜 너무 발굴을 잘해 주셔서 지고 (후략) (유관기관C)”

③ 일선학교 및 교육청

청소년 연령의 상당기간이 학령기에 속하는 만큼 일선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해 은둔 청소년이 발굴되기도 한다.

“중학교 선생님이 의뢰해 주셨어요 ‘너무 신경이 쓰이는 아이다’ (중략) 은둔형은 학교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자체F)”

④ 1388지원단 등 지역 내 사회 자원

비 학령기이거나 학교에 속해 있지 않은 은둔청소년 중에서는 지역 내 사회 자원을 통해 지자체 등으로 발굴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부동산에 집주인이 우리 집에 쓰레기 많이 쌓이고 있는 애가 있는데 (중략) 집주인도 자기가 월세가 안 들어오거나 이러면 또 연락 주시기도 하고요 (지자체F)”

마) 지원(개입)

은둔청소년의 지원(개입)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를 확인한 문항에서는 3가지 중범주와 12가지 하위범주가 추출되었다.

(1) 성공적인 지원방안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은 은둔청소년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방안으로 2가지를 언급하였다.

① 지지적인 가정환경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의 노력만으로는 은둔청소년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은둔청소년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노력과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협조가 그래도 다행히 있는 가구였던 지라 어쨌든 가족을 통해서라도 계속 이제 만나뵈면서 조금 조금씩 만나고 이제 그 빈도를 조금 조금씩 넓혀 갔던 것 같아

요 (유관기관C)”

② 은둔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은둔청소년에게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경제적 지원 등 즉각적 확인 가능한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개입시도와 충분한 기다림, 욕구 우선순위 파악, 자조집단 운영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비용도 50만 원 해주고 (중략) ‘니가 사인해야 돼’ 하고 근데 사인 진짜 안 해도 돼도 제가 ‘해야 된다’ 고 거 짓말을 하죠 그럼 이제 아이 얼굴 보려고, 그렇게 와요 (지자체F)”

“보호자 분이 쓰러져서 병원을 가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불안을 느끼셨나 봐요 저희가 이제 의료 지원이라든지 ‘보호자가 만약에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계속 끌고 나갔고 (후략) (지자체B)”

“가구원 전체가 은둔인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4개월이 걸렸고 (중략) 그 집에 어머니가 살고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데 7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관리까지 가는 기간이 11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지자체B)”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정말 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그때 욕구 파악을 많이 해줬더니 본인이 이제 뭘 하고 싶은지 의지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래도 조금 운동하러도 나가고 본인 자격증 따러 한다고 (후략) (지자체E)”

“자조집단.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랑 비슷한 아이들이랑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 가서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안 나가겠지만 편안한 곳, 안전한 곳 나랑 비슷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유관기관H)”

(2) 지원 시 어려운 점

은둔청소년 개입의 어려움으로는 5가지의 하위범주가 나타났다.

① 국가보장 체제에서 소외로 개입의 한계

가족과 거주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교 거부, 외부와의 고립 등의 은둔으

로 의심할만한 특성을 보일 때, 가족이 지지 자원으로서 청소년의 상태를 확인하고 개입을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같은 취약 계층도 지자체가 사례 관리를 하며, 민관을 막론하고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독립했거나 가족이 없는 은둔청소년 혹은 일반 가구의 은둔청소년은 국가의 다양한 보장 체계에서 배제되어 발굴 및 개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뭔가 조금 우리가 지지 체계로 얘기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24세 정도 되거나 그러면 청년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혼자 고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자체B)”

“애 혼자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고아원에서 이제 성인 되면서 나온 그 아이였고 막 그랬었어요 (지자체F)”

“기초생활수급 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발견하기 더 좋아요, 지원하기도 더 좋은데. 근데 〇〇〇 같은 경우에는 저기 〇〇권역에는 거의 사례관리 대상의 70%가 일반 가구였거든요, 발굴도 어렵고 근데 발굴이 돼도 지원도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자체B)”

② 개인의 역량에 따라 사례 진행/성공 여부가 결정

은둔 정도와 유형, 성격과 은둔 전후의 경험 등에 따라서 은둔청소년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복지 서비스와 욕구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은둔청소년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자/상담자의 ‘맞춤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들의 개인 역량이 은둔청소년 개입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저희가 이거를 해보니까 발굴은 지역에서 협의체 위원분들이나 해주시기는 하는데 이분들한테 만나서 지원하기까지가 굉장히 저희 통합사례관리사의 개인적인 역량에 조금 많이 치중이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컨택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조금 포커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B)”

③ 만남을 지속하기 어려움

제한된 공간에 머물고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은둔청소년의 특성 상 외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와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개입을 거부할 시에는 만남이 지속되기 어렵다. 사례 연계를 받은 2차 기관의 전문가와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데 거부감을 보이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운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좀 저항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이나 대면이나 누군가와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후략) (유관기관C)”

“조금은 제가 장기적으로 1년 정도로 끌고 가다가 종결이 된 케이스도 있긴 하거든요 (중략) 본인 동기가 낮으면 저희가 계속 옆에서 막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자’ 해도 계속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유관기관C)”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싫어하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중략) 저희는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하셔서 더 은둔형으로 만들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자체E)”

“처음에 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았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연락 차단. 그래서 이제 동반자 선생님하고는 라포 형성이 잘 돼서 (중략) 주 1회 상담복지센터 선생님이 주로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선생님도 이쪽으로 전화가 와서 ‘이런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다른 서비스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자체E)”

④ 사례관리사·상담자 소진이 심함

변화의 욕구가 없고 사회적 기술이 미숙한 은둔청소년은 자신의 감정,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때로는 외부의 연락개입을 거부하기도 한다. 개입에 부정적·소극적인 은둔청소년에게 다가가는 것은 훈련된 사례관리사/상담자에게도 소진을 초래한다.

“본인은 하기가 싫으니깐 ‘왜 다 하기 싫은데 왜 계속 하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연락을 해도 안 받고 가도 없고 (중략) 본인의 감정적인 표현이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에도 좀 어려움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상담으로 참여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게 되는 케이스가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유관기관C)”

⑤ 은둔관련 정보 및 전문성 부족

은둔청소년은 상담복지 현장에서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대상자이기는 하나, 현장의 종사자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유형이며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 효과적인 은둔청소년 사례 관리에 관한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청소년들은 어떻게 진짜 사례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좀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그렇게 자꾸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자체E)”

“전문적으로 조금 힘이 부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같은 사례관리 대상임에도 은둔형이라는 건 약간 조금 저희가 많이 다루지 못했던 유형들이고 요즘 많이 부각되고 (중략) 문제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지자체B)”

바) 종결

은둔청소년 사례 종결과 관해서는 2가지의 중범주가 추출되었다.

(1) 종결의 기준

지자체/유관기관에서는 사례 관리의 회기 내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에 도달한 은둔청소년 사례를 종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들이 또 되게 사례 관리를 저희들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만 하는 케이스에서 제가 올 ○월 ○일 날 또 종결한 케이스예요 (지자체F)”

(2) 사후 관리

기관의 사례 관리 방침에 따라 정해진 개입 회기/기간이 지나면 사례를 종결하기는 하나,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은둔청소년의 위기도, 욕구에 따라 유관기관으로 연계하여 공공 서비스 체계 안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개입을 하고 있었다.

“제가 종결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걱정돼서 항상 톡을 넣어요 (중략)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서 지금도 카톡하고 문자만 하고 있고요 (지자체F)”

“종결은 우리가 하지만 지역에서는 애가 살아나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리하거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기관들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후 관리 우리 기관에 종결을 해도 우리는 종결이지만 사후 관리를 우리는 기본적인 안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정신 건강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다. 그럼 여기서는 관리도 되지만 저희한테는 사후 관리 기관이 되는 거죠 (지자체B)”

사) 앞으로 필요한 은둔청소년 지원체계

은둔청소년의 효과적인 발굴, 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은둔인식 필요’, ‘거점기관 필요성’, ‘정책 지원 및 수립 필요’, ‘유관기관 협업’의 4가지 중 범주와 9가지의 하위범주가 확인되었다.

(1) 은둔에 대한 인식 필요

은둔에 대한 인식 필요에는 3개의 하위범주가 확인되었다.

① 부모인식 부족

은둔청소년의 최초 발굴자이자 최고의 지지자원은 부모 내지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은둔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은둔 성향을 보일 때 부모가 적시에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은둔에 대한 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은둔의 원인이자 심화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은둔청소년 부모가 은둔 자녀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은둔이면 내가 이걸 오픈할까 (중략)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면은 어떤 이런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사회에 이렇게 좀 홍보라든가 이런 게 돼야지만 이런 이제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됐을 때 이렇게 아이들을 이런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게 돼야 될 것 같아. (지자체A)”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뭔가 막 해줬는

데 이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변함없는 나의 부모를 만났을 때 이 아이는 똑같이 또 원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개입하고 부모에 대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관기관D)”

② 지역사회 내 인식 부족

지역사회에서 은둔청소년을 지원하는 유관기관의 종사자 중에서도 은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은둔, 사회적 고립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 대중에게 퍼져 있어서, 은둔청소년 대상 사업을 알리고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은둔청소년 및 부모가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상담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전문 기관에 계신 분들을 최대한 이제 모시고 이제 관련 이제 담당자분들한테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교육을 하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중략) 은둔이 좀 부정적인, 이제 사실 그 은둔이라는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지자체A)”

“왜냐하면 사업을 하실 때 은둔형 사업비든 뭐든 이런 것 때문에 은둔형, 사회적 고립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략) (고립-은둔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갑자기 확 가더니 ‘그 사업이 뭐냐? 왜 내가 사회적 고립이냐?’ 완전 난리가 (후략) (지자체F)”

“실은 이 은둔청소년이든 부모든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홍보 좀 돈을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유관기관D)”

(2) 거점기관 필요성

은둔청소년에게는 장기간 개입이 필요하나, 현재의 공공 상담복지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례 개입 시 횡수기한이 정해져 있다. 지역 내에서도 유사한 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들이 은둔청소년에게 개입을 하는 것도 사례 관리의 효과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은둔청소년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유관기관 간의 지원을 조율하는 은둔형 외톨이 거점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출되었다.

“은둔형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얼마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걸 쌓아서 끌고 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내실을 가진, 다 성과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중략) 전문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후략) (지자체B)”

“비슷한 지금 기관들이 여러 체계로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한 곳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금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별도의 어떤 센터나 기관이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자체A)”

(3) 정책 지원 및 수립 필요

은둔청소년 관련 정책 지원 및 수립과 관련하여 ‘세대 구분 없는 전연령대 은둔자 개입’, ‘예산지원 필요’,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개입 의무화’, ‘촘촘한 발굴시스템 구축 필요’, ‘새로운 사업명 필요’의 5개의 하위범주가 추출되었다.

① 세대 구분 없는 전연령대 은둔자 개입

청소년의 은둔 문제가 조기에 발견, 해소되지 않아 장기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은둔 인구의 노령화의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이에 연령이 아닌, 은둔형 외톨이의 현 상태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자체장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1인 가구 팀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 팀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건 아니고 청장년 1인으로 맞춰져 있어 가지고 (중략) 고립된 청소년이 나중에 크면 1인 청장년이 되고 독거노인이 될 거니까 (후략) (지자체F)”

② 예산지원 필요

기존의 예산을 활용하여 은둔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해당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은둔청소년 개입에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중략) 저희도 이렇게 어떻게 기존 예

산을 쪼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한 성과를 보고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아서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힘들게 사업을 조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A)”

“저희 센터에 그러한 별도 예산이 없었어요 (중략) 저희 상담 사업 예산에서 그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집단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그 여건이 안 되고 있고 (유관기관D)”

③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개입 의무화

은둔청소년 중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문제점 외에도, 심리정서 및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등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은둔청소년은 즉각적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난방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에 달리, 본인의 신체적·심리적 안녕을 객관적으로 확인받고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에 은둔청소년의 동의하지 않더라도 위급 정도에 따라서는 지자체/유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서 상담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에 기본적으로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중략) 꼭 동의하지 않아도 아니면 필요하거나 위급 상황이 느껴지면 본인이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저희가 찾아가서 뭔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최소한의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지자체B)”

④ 촘촘한 발굴시스템 구축 필요

은둔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고 언급되었다. 은둔청소년을 발굴하였어도 체계적인 개입 시스템 안에서 적절한 상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은둔청소년이 다시 은둔 상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저는 먼저 발굴보다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홍보는 이제 언제든지 하면서 그 뭐지 인원을 계속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하면 다시 원점으로

로 가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관기관D)”

⑤ 새로운 사업명 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은둔에 대한 범국가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은둔청소년을 발굴하여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은둔’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없는 새로운 사업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런 부정적 인식 때문에 사실은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지 않고 (후략) (지자체A)”

“은둔형이 ‘고립’ ‘은둔’ 이걸 너무 싫어해서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요구르트 사업이나 뭐 이렇게 지원이 있어서 제가 한 번씩 문을 두드리기도 하는데 (후략) (지자체F)”

(4) 유관기관 협업 필요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은 은둔청소년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지난한 시간을 보낸다고 보고했다. 은둔청소년을 만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 청소년상담복지기관 등 유관기관의 종사자 집단이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신 건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은둔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지 이런 게 (중략) 그냥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조금 많이 했어요 (지자체A)”

“대부분 은둔형들은 그 현장에서 그런 도움들이 필요하고 적기에 들어가서 뭔가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중략) 그래서 기본적인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중략) 그런 서비스들이 조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지자체B)”

라.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 프로세스

은둔청소년가족에게 상담개입을 했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 인터뷰(14명) 및 청소년상담자 대상의 현황 조사(240명) 결과를 통해 청소년상담복지 현장에서의 은둔청소년 지원 프로세스를 확인하여 도식화하였다〔그림 3〕. 지역 및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은둔청소년 지원 프로세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연구가 진행된 현 시점에서 은둔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는 크게 발굴, 접수 및 사정, 개입, 종결 및 재사정의 네 개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발굴단계로, 은둔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서는 발굴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단계이다. 그 이유는 외부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은둔청소년의 특성, 가족의 은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은둔 문제가 외부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발굴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청소년상담복지현장에서는 은둔청소년 및 은둔자녀를 둔 가정과 접점을 만들기 쉬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은둔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 인구 중 다수가 학령기에 속하는 만큼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협업을 통한 은둔청소년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먼저 지역사회를 통한 발굴에서는 공공부문의 고위기 가정 및 청소년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지자체 희망복지팀에서는 통합사례관리자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위기를 가진 개인·가족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지자체 희망복지팀 등에서 은둔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을 발굴하여 대상자들의 욕구에 기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복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은둔청소년이 발굴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종사자 및 공무원(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 등), 지역 주민(공인중개사무소, 이·미용실 종사자 등)을 통하여 지자체 희망복지팀 등의 공공부문으로 발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청소년유관기관(공공 및 민간)이 협력하여 은둔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종사자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체 운영, 교육 실시, 홍보물 배포 및 안내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 주민을 통한 은둔청소년 발굴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채널(SNS, 유튜브 등)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버스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언론보도) 및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둔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자체의 사업(자해흔적 지우기, 은둔이웃사업 등)을 통해서 은둔청소년이 상담복지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은둔청소년 가족이 자발적으로 지자체 및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 방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둔청소년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상담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일차적 보호자이자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가족을 통한 발굴이 있었다. 은둔에 대한 가족의 지식 정도, 민감성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은둔 시작 시점과 가족이 은둔을 인식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했다. 은둔 문제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 은둔의 중단 및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일 수 있으므로 가족을 통한 은둔청소년의 성공적인 조기 발굴을 위하여 부모 및 가족 대상의 은둔사업 홍보 및 은둔 관련 교육, 은둔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은둔 당사자가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양육,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등 은둔 이전에 가족과 관련된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이 은둔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예비) 부모에게 양육 코칭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상담·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일상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통해 은둔청소년을 발굴하고 있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학업숙려제를 시작하는 청소년은 소속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가 되고 있어, 초·중학교 시기의 은둔(위험군)청소년을 적시에 발굴하고 필요한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은둔이 주로 발현이 되는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은 이 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지역 사회 내의 후기 청소년의 은둔을 조기에 발굴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기관과 학교 및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 각급 학교 내의 교(직)원, 학부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은둔·청소년 징후 및 관련 고위기 청소년 예방 교육을 통해 은둔(위험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접수 및 사정단계로 은둔·청소년의 경우 등교거부, 대인관계 어려움, 중독, 정신건강, 가정폭력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의 위기수준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접수 및 사정이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은둔·청소년·가족의 호소문

제, 위기수준 등에 따라서는 청소년상담복지 전문가 외에도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초기 접수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가 진행된 2023년에는 은둔청소년 서비스 지원 거점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복지현장에서는 라포가 형성된 상담자가 주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은둔청소년은 타인과 관계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령 또는 호소문제 등에 따라서 여러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담복지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 재은둔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개입단계는 은둔으로 판별된 청소년과 가족에게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한 단계이다. 주 사례관리자는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유관기관 간의 사례회의를 통해 은둔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및 이관, 모니터링 등의 후속 개입 등 지원의 범주를 충분히 논의하고 개입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었다.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은둔청소년의 특성 상 은둔청소년 개입은 가정방문이 다수를 이루었고, 자녀의 은둔 문제로 심리정서 문제는 물론이고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상담 및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고위기청소년이 그렇겠지만, 은둔청소년은 심리정서 지원 외에도 자립, 교육, 경제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할 때 고립은둔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다. 지역 사회 내의 다양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례관리자가 유관기관과 사례회의, 사례연계 및 조율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기관에서는 기관 설립 및 운영의 목적 등에 따라서 개입 연령 또는 개입 회가기간의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은둔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형성부터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고 라포가 형성된 후에도 실제로 은둔을 중단하고 사회로 복귀하기까지 오랜 기간 사례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현장의 청소년상담복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은둔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었다. 기관 내에서 사례관리사와 전문상담자가 한 팀이 되어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상담자 1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은둔청소년 및 가족에게 개입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 및 다양한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유기

적으로 은둔청소년과 부모에게 개입하여 적시에 필요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마지막은 종결 및 재사정 단계이다. 은둔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전개 과정을 거친다. 전문가들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은둔이 시작되고, 은둔청소년에게 초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은둔의 장기화 및 재은둔의 위험이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개입 및 종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서비스 계획과 재사정 주기, 종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관기관으로의 이관연계 이후 개입이 종결이 되는 경우에도 재은둔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공동 관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지역사회에 은둔청소년 발굴 협조 요청
- 은둔청소년 발굴을 위한 각 센터별 자체사업
- 지역사회 홍보
- 스크리닝을 통한 은둔수준파악
- 접수된 사례 초기면접 진행
- 사례 개입 계획 및 사례 배정 회의
- 필요시 통합사례회의 실시
- 사례별 지원가능 자원 파악
- 해당 case별 필요 자원 연결 및 지원
- 상담/심리치료/자립, 교육, 금품 지원 등/사회화 지원으로 구분하여 사례 개입
- Case 지원 기록지 작성 및 해당 내용 공유
-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사례 회의 진행
- Case 재사정 이후 종결 또는 재개입 결정
- 사후관리
 - 해당 case 사후 관리
 - 관련 담당 기관 결정 후 case 이관

[그림 3]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 프로세스

V. 결론 및 논의

1.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개발 및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종사자가 은둔청소년을 판별하기 위한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은둔청소년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을 검토하였고, 기 개발된 스크리닝 척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용 연령이 청소년에 초점화되었다기보다는 청소년과 성인까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둘째, 기존의 척도들은 은둔청소년 집단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하거나 적절하지 않아서 청소년상담복지현장에서 종사하는 상담자가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기존의 척도는 은둔청소년 또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청소년상담복지현장에서는 종사하는 상담자가 은둔청소년을 판별할 수 있는 척도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기존의 척도들은 25문항 이상으로 현장에서 청소년상담자들이 평가하기에는 문항 수가 다소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계 전문가의 자문과 평정을 받고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요인을 추출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총 13문항, 3개의 하위요인인 사회단절 및 고립, 회피, 불규칙한 생활방식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문항별 0점에서 4점범위)를 개발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적합한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은둔청소년의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 은둔청소년 집단과 비은둔청소년 집단의 변별가능 여부를 검증한 결과, 적절하게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척도를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둔청소년 판별기준으로 사용되는 하위요인별 절단점은 사회단절 및 고립이 11.5점, 회피가 13.5점, 불규칙한 생활방식은 5.5점으로 제시되었으며, 본 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절단점 이상이 되었을 때 은둔청소년(고위험)으로 판별하였다. 이상에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서는 은둔청소년의 개념이나 특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종사자가 은둔청소년을 판별하기 위한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청소년상담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효과적 활용방안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에서는 사회단절 및 고립, 회피, 불규칙한 생활방식 영역에서 모두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보인 청소년을 은둔청소년으로 판별한다. 은둔청소년은 고위험으로 청소년상담자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은둔으로 접어들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계기, 현재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사항을 탐색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상담자는 은둔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상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자나 채팅상담 등을 통해 수시로 은둔청소년에게 관심을 표시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한 대화 시도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상담자는 한 번의 개입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기 보다는 꾸준히 관심을 보여 라포형성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본 척도에서의 3가지 하위요인 중 하나 이상의 요인에서 절단점 이상이 나타난 경우, 예방적 관점에서 은둔청소년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현재의 생활 상태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은둔청소년의 개입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2차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척도에서는 은둔청소년의 우울, 강박 등 정신건강 영역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병리적인 문제가 없는 청소년을 선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크리닝 척도를 통해 은둔청소년으로 판별하는 것을 선행한 후, 그들의 정신건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은둔청소년의 위험요인으로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은둔청소년의 경우 자살 및 자해 등 위기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김혜원 외, 2022; Kato et. al., 2019).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복지기관 종사자의 현황조사에서도 은둔의 계기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폭력외상이나 보호자의 돌봄 부재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청소년상담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이유와 목적도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척도를 통해 은둔청소년으로 판별된 청소년은 2차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인 정신건강에 대한 취약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연계개입이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현재 상담자가 사용하고 있는 위기스크리닝(초등학교 5학년이상)을 실시하여 1차 위험요인 영역 중 개인영역의 정신건강 문항(3번, 4번, 5번, 7번)에서 위험군으로 나타난 경우와 2차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에서 고위험(인터넷 중독, 가정폭력, 아동학대, 약물사용, 자살)으로 나타난 경우, 병원 등 전문기관과의 즉시 연계하여 긴급개입을 진행해야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심리정서·환경 척도(13세~24세용)를 활용하여 세부항목 중 우울·불안(42이상),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영역(29이상)에서는 절단점 이상을 받은 경우와 반항·품행, 망상·환청, 중독, 자살·자해, 가정환경, 또래환경, 지역사회 환경 영역에서는 개별문항의 응답을 확인하여 위험성 정도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심리검사나 진단의뢰를 통해 정신증적 장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은둔청소년이 자살·자해 등 심각한 위기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셋째, 은둔청소년으로 판별된 경우, 그들의 보호요인인 부모나 가족의 지지 정도를 확인하고, 상담개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은둔청소년의 특성상 대부분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김혜원, 2022; 윤철경 외, 2021; 이영식, 최태영, 2022), 은둔청소년에 대한 가족의 신뢰와 지지 및 기다려줌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뽑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진행된 현황조사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은둔을 뒤늦게 인지한 이유에 대해 가족 간의 소통부재나 무관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은둔청소년의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답답함, 걱정과 해결방법을 몰라 불안과 두려움 등 부정적 심리정서 경험이 나타났다. 또한 은둔청소년의 부모는 자녀를 돕기 위해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며), 믿고 기다려 주거나 상담기관을 알아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40.0%, 56명).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서 은둔청소년의 최초 개입은 부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은둔청소년을 판별한 후 부모나 가족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자녀인 은둔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2.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본 연구에서는 은둔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상담개입을 진행하였거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상담자 대상의 현황조사(240명)와 포커스그룹 인터뷰(14명)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도출된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둔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청·학교와의 연계 및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실제로 은둔의 원인, 은둔 이전의 부정적 경험 중 상위를 차지하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학교폭력 피해 등이 학교 또는 학교에서 맺어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등교 거부, 학교 적응의 어려움 등 은둔의 초기 양상으로 볼 수 있는 특

성을 바로 관찰할 수 있는 공간도 학교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은둔(위험)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인 학교·교육청과 청소년상담복지기관과의 촘촘한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은둔청소년을 누락하지 않고 조기에 발굴, 개입하는 방안이 강조되었다.

둘째, 은둔(위험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외부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은둔청소년의 특성 상 대부분의 상담자는 처음부터 은둔청소년에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이어나가는 것도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은둔청소년에게 개입을 할 때 청소년 당사자보다는 가족들에 대한 개입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은둔청소년의 가족은 답답함, 걱정, 불안 등 부정적 심리정서 경험 외에도 대인관계 단절, 경제적 문제, 가정 내의 불화로 이어지는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족은 은둔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지지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은둔 가족에 대한 개입은 직접 수혜자인 은둔 가족의 안녕에 기여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은둔 종결에 간접적이지가 가장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될 수 있다. 은둔당사자가 은둔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오기까지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가족 대상의 각종 상담복지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둔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은둔의 양상, 대인관계의 고립 정도, 은둔의 이유 및 은둔 이전 부정적 경험 등 은둔청소년에 따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복지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은둔청소년의 현재를 이해하고 이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둔청소년의 상황, 욕구에 맞는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은둔청소년 지원 실패의 주된 이유로 희망 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한계를 꼽을 만큼, 은둔당사자와 가족에게 적시에 필요한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은둔청소년 개입의 핵심이자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 유관기관에서 은둔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은둔청소년 및 가족이 희망하는 다양한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넷째, 은둔청소년의 주사례 관리기관으로써 거점기관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국내·외의 은둔 지원체계를 보면, 일본,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거점센터(민간 혹은 공공)가 서비스를 지원·관리하는 사례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2023년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은둔관련 제도와 사업이 청년연령에 맞추어져 있어 청소년이 제도권 안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은둔청소년은 은둔 기간, 정도, 유형 등에 따라서 사례관리자 혹은 상담자와 라포를 형성하기가

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어도 은둔을 종결하기까지 장기간의 개입이 요구되기도 한다. 은둔 종결 이후에도 사회에서 철수하여 은둔을 반복하기도 하는 은둔청소년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은둔청소년이 궁극적으로 은둔을 끝내고 사회로 복귀하기까지의 과정동안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연계하며, 은둔이 반복악화되기도 하는 위기를 함께 극복할 사례관리자 및 주 사례관리기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장에서 은둔청소년 및 가족과 대면하는 사례관리자전문상담자의 역량 향상과 소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은둔청소년은 개인적 경험, 욕구, 은둔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은둔청소년에게 개입하는 전문가에게는 적지 않은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 전문 상담 능력, 상담복지서비스 전문기관 정보 등의 여러 가지 역량과 지식이 요구된다. 청소년이 은둔을 종결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은둔청소년과 가족에게 직접 개입하는 상담자가 이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은둔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비결로 상담자와 안정적인 지지적인 관계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상담자가 은둔청소년·가족에게 최상의 상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은둔청소년의 특성 및 효과적인 상담개입 기법, 전문기관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은둔청소년 개입 기법·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시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와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은둔이라는 고위기 사례에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시간적·공간적 휴식 기회 제공, 힐링 프로그램 지원 외에도 법적·윤리적 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기간 개입이 필요하고, 타인과의 라포 형성이 어려운 은둔청소년과 상담자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상담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자의 근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은둔청소년 관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은둔청소년은 소극적이어서, 게을러서 등의 개인적인 변인이 아니라,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교폭력 피해, 가정폭력 내 돌봄 부재, 학업취업 관련 좌절 경험 등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 은둔으로 몰리는 경우가 다수이다. 청소년 은둔의 장기화, 만성화는 은둔당사자 뿐만 아니라 은둔 구성원이 포함된 가족 전체의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은둔 인구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예산 등의 부담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은둔당사자 개인 및 가족의 안녕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은둔청소년 개입이 필수적이며, 은둔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은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인식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차원의 인

식과 은둔사업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후조치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예방차원에서의 인식개선은 은둔의 위험요소 예방 및 조기 개입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은둔의 위험요소인 따돌림,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과 같은 사건을 겪은 청소년들을 조기에 개입하고 트라우마 관리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치 못하게 위의 사건들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조기에 개입하여 은둔이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의 경험이 곧 은둔의 발생, 악화에 영향을 주는 잠재요인이고, 이러한 부정적 사건 발생의 억제 및 조기 발견개입이 은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본임을 학교 및 지역사회에 알려야 할 것이다.

사후조치 차원으로 은둔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비난과 억압적인 사회분위기의 개선, 은둔에 대한 이해 및 은둔청소년·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있다. 실제로 은둔청소년을 둔 가족 중에는 친인척, 지인에게도 가족 구성원이 은둔 상태라는 것을 숨기거나, 은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상처를 받고, 전문기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가족이 은둔을 하고 있을 때 은둔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고립이 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혹은 가족이 은둔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초기 은둔청소년을 장기간 방치하여 은둔이 만성화되기도 하고, 지원서비스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초기 은둔청소년에게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은둔에 대한 인식 개선, 은둔 및 은둔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은둔청소년을 적극 발굴, 개입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고등학교에서도 학업숙려제 대상 청소년을 의무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여 공공서비스 체계에서 소외되는 은둔(위험군)청소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병의원시설에서 자살시도·위험군을 발굴할 시에는 개입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서 은둔(위험군)청소년에게 일정 정도 이상의 개입의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은둔의 조기 발굴 및 개입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광주광역시 (2020).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2023). 소개. **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https://gjtory.kr/introduce>에서 2023.3.15. 인출
- 고스게 유코 (2012). **은둔형 외톨이 사례연구: 한국과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배진우 (2017). **청소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NEET)**.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권향원, 김창환, 박미선, 성재민, 이철선, 최한수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성아 (2021).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서울: 국무조정실.
- 김신아 (2019).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예진 (2019, April 16). 일본, 히키코모리가 낳은 ‘8050 문제’ 심화 ... 지자체 대책 모색.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416010010915>에서 2023.3.15. 인출
- 김현정 (2015). **청소년 우울의 영향요인 연구: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2020).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제도적 지원의 정립**.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방안 토론회(2020.8.25.).
- 김혜원 (2022).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특성 및 은둔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9(10), 1-32.
- 김혜원, 조현주, 김지연, 김연옥, 김지향, 박찬희 (2022). **은둔형 외톨이 상담: 당사자와**

- 부모 상담가이드북**. 서울: 학지사
- 김효순, 김서연, 박희서(2016). 은둔형 외톨이 성향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1(6), 149-156.
-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4.11). ‘은둔형 청소년’도 정부서 생활비·학비 지원받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719>에서 2023.4.11. 인출
- 박주홍, 손지현, 서두산 (2022).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 백형태, 김봉년, 신민섭, 안동현, 이영식 (2011). 부모 작성용 은둔형 외톨이 선별 도구 개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2(4), 262-270.
-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 양미진, 지승희, 김태성, 이자영, 홍지연 (2007).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적척도 개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8(2), 119-134.
- 여인중 (2005) **은둔형 외톨이**. 서울: 지혜문학.
- 여성가족부 (202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3, February 27.).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K-청소년: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122에서 2023.3.15. 인출
- 오상빈 (2020). **고립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은둔형 외톨이 치유와 예방**. 서울: 솔학.
- 오오쿠사 미노루 (2020). 해외의 히키코모리 지원 현황: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토론회 자료**. 2020.8.25.
- 윤철경, 서보람 (2020).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제도적 지원의 정립**.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방안 토론회(2020.8.25.).
- 윤철경, 박선영, 임말희, 김재희, 문금화, 김연정 (202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가족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윤철경, 권세진, 박현정, 서희정, 이정현, 황현 (2022). **2022 고립·은둔 청년 바우처 지원방안 연구**. 서울: GL학교밖청소년연구소.

- 이시형, 김은정, 김미영, 김진영, 이규미, 구자경 (2000).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적응**.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영식, 최태영 (2022). **은둔형 외톨이 탈출기-우리 모두의 이야기**. 서울: 학지사
- 이지민, 김영근 (2021). 은둔형 외톨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은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6(2), 61-91.
- 이재영 (2014). **사회적 은둔 청소년의 임상특성, 평가 및 치료**.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제3판**. 서울: 박영사.
- 제세령, 최태영, 원근희, 봉수현 (2022). 은둔형 외톨이 자가보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61(2), 80-89.
- 조근식 (2020). **외로움 담당관 제도에 관한 기초 연구**. 강원: 강원연구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이야기하다. **청소년상담이슈페이퍼 3호**.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1-3차년도 데이터 유저 가이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함께걷는아이들 (2023). **2023 가을호 소식지_은둔형 청년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https://walkingwithus.tistory.com/913>에서 2023.10.12. 인출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후생노동성. **貧困・格差の実態を総合的・継続的に把握するための指標の開発に関する経費**. <https://www.mhlw.go.jp/topics/2012/01/dl/tp0118-1-10.pdf>에서 2022.2.4. 인출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 Cabinet office. Investigation on living conditions [Internet]. Tokyo: Cabinet office [cited 2021 Nov 23]. Available from: <https://www.cao.go.jp/youth/kenkyu/life/h30/pdf-index.html>.
- DCMS (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London: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 Fluss, R., Faraggi, D., & Reiser, B. (2005). Estimation of the Youden Index and its associated cutoff point. *Biometrical Journal: Journal of Mathematical Methods in Bio sciences*, 47(4), 458-472.
- Kato T. A, Kanba S, Teo A. R. (2019). Hikikomori: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 assessment, and futu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Psychiatry Clinical Neuroscience* 73, 427-440.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 Bask 1)*. NY: Guilford.
- Schumacker, R. E., & Lomax, R. G. (2004).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Psychology Press.
- Teo, A. R., Chen, J. I., Kubo, H., Katsuki, R., Sato Kasai, M., Shimokawa, N., ... & Kato, T. A.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25 item Hikikomori Questionnaire (HQ 25).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2(10), 780-788.
- Wong, P. W., Li, T. M., Chan, M., Law, Y. W., Chau, M., Cheng, C., Fu, K. W., Bacon-Shone, J., and Yip, P. S., 2015,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severe social withdrawal (hikikomori) in Hong Kong: A cross-sectional telephone-based survey stud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1(4), 330 - 342.

부록1.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지시문) 최근 3개월 동안 아래의 문항을 읽고 내담자의 상태는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내담자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번호를 하나 골라서 ○표를 하십시오.

번호	문항	해당되지 않는다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조금 해당된다	해당된다
1	학교나 직장(알바)에 가지 않는다	0	1	2	3	4
2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	0	1	2	3	4
3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인터넷(유튜브)이나 게임에 몰두한다	0	1	2	3	4
4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0	1	2	3	4
5	가족이 없을 때(혹은 잘 때)만 움직인다	0	1	2	3	4
6	남들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까봐 걱정한다	0	1	2	3	4
7	하루 종일 거의 집에서 보낸다	0	1	2	3	4
8	누군가와 연락(통화, 문자 등)을 하는 일이 별로 없다	0	1	2	3	4
9	친구가 거의 없다	0	1	2	3	4
10	가능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싶어한다	0	1	2	3	4
11	방을 정리하지 않아 지저분하다	0	1	2	3	4
12	일상생활이 불규칙하다	0	1	2	3	4
13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	0	1	2	3	4

부록 2. 위기스크리닝 척도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용)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

- (초기 면접에서 수집한) 아동·청소년 대한 정보를 토대로 **지도자가 직접 평정** 합니다.
- (평정을 위한 질문 시) 아래 예시 질문 등을 활용하여 해당 영역을 포함한 내용으로 연령대에 맞는 다른 표현으로 질문합니다.
- (참고)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구성
 - 1차 위험요인 영역: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 영역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차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인터넷 중독, 학업중단,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문제, 가출, 약물중독, 자살의 9가지 영역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안적 질문

<개인영역>

6. 학교공부를 이해하거나 일상적인 문제를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

<가정영역>

4. 부모 등 보호자가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교도소에 다녀오거나 큰 벌금을 물은 적이 있다.
6. 부모 등 보호자가 우울, 불안, 환청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정신과 병원에 다닌다.

● 실제 질문 예시 ●

☞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 위험요인 영역 질문 시 '위기스크리닝 척도 문항별 해설'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우회적으로 질문

<개인영역> "6. 학교공부를 이해하거나 일상적인 문제를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Q(예1). 00는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니?

Q(예2). 00는 평소에 학교나 집에서 무언가 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고 계획하는 걸 잘하니? 아니면 어려워하는 편이야?

☞ 질문 내용 구성이 어려울 경우 부록(4. 위기스크리닝 척도 문항별 해설) 내용을 참조

< Part 1 > 위험요인 영역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용)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오	미확인
개인	1.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2.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3. 우울해하거나 목표의식이 없다.			
	4.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많다.			
	5. 중독(알코올, 약물,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등) 문제가 있다.			
	6. 인지력·이해력·어휘력·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이 있다(경계선급 지능 수준)			
	7. 성적 관심(예. 음란물 등)이 과도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가정	1. 가족원간의 폭력과 갈등이 심하다. ‘예’로 응답한 경우: 부모 간() 부모와 내담자() 형제와 내담자() 기타()			
	2.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별거 혹은 이혼했다. ‘예’로 응답한 경우: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			
	3. 가출을 했거나 비행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있다.			
	4. 부모 등 보호자 중 형 집행을 선고받은 적 있다.			
	5. 부모 등 보호자에게 중독(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 등) 문제가 있다.			
	6.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정신질환(우울, 불안, 환청 등) 문제가 있다.			
	7.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채무, 빈곤, 실직)가 있다.			
	8. 가족이 이웃, 친족과 왕래가 없다.			
도래 및 학교	1. 지속적으로 술, 약물흡입(본드, 부탄가스, 락카), 도박을 하는 친구가 있다.			
	2. 친한 친구나 선배 중에 폭력 서클에 소속된 친구가 있다.			
	3. 친한 친구 중에 조건 만남(성매매)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4. 친구가 없이 따돌림 당하고 있다.			
	5.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			
	6. 공부에 흥미가 없고 성적이 매우 낮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결석한다.			
지역 사회	1. 주거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다.			
	2. 지역사회가 빈곤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3.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욕설이나 폭행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위험정도는 점수 합계가 0~4 : 일반군 및 잠재군, 5~9 : 위험군, 10점 이상 : 고위험군

< Part 2 >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용)

-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은 위기영역 점수 합계와 상관없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하나라도 ‘예’일 경우 고위험으로 표시합니다.
- 파악이 되지 못한 부분은 ‘미확인’에 체크하고, 추후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하도록 합니다.
- ※ 본 영역에서 ‘예’라고 답할 경우에는 첨부된 “구조화 면접지”를 면접 중에 **활용하여 위기 상황을 파악**한 후 그 내용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합니다.

※ **대안적 질문**

<아동학대>

- 가정에서 보호자가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계절에 맞는 옷을 주지 않거나, 말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한다.
- 가정에서 보호자가 형제나 자매를 심하게 때리거나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 **실제 질문 예시** ◎

☞ 아래와 같이 우회적으로 질문

<아동학대> “1. 가정에서 보호자가 내담자의 형제를 심하게 때리거나 방임한다.”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Q(예1). 부모님이 00이를 자주 때리거나 음식을 주시지 않아 많이 배고팠던 적이 있니?

Q(예2). 부모님이 00 형이 많이 아플 때 잘 돌봐주시는 거 같아? 약을 주시거나 병원을 데려가서?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 오	미확 인
인터넷 중독	게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예: 학업, 대인 관계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학업 중단	학교를 그만 두었고 학업을 계속 할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학교 폭력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심하게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같은 반 친구를 심하게 따돌리거나 괴롭히고 있다.			
가정 폭력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중 내담자에게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내담자가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 하는 사람이 있다.			
아동 학대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을 당하고 있다.			
	가정에서 보호자가 내담자의 형제를 심하게 때리거나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한다.			
성문제	성폭력(강간, 성추행)을 당하거나 한 적이 있다.			
	조건 만남(성매매)을 한 적이 있다.			
	남 : 여자 친구가 임신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여 : 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가출	현재 가출한 상태이다.			
약물 사용	최근 3개월 이내에 환각제나 가스, 본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자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부록 3. 심리정서·환경 척도 (13~24세용)

날짜	(년 월 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 /)

번호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난 1개월 간 나는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1개월간 나는 원하지 않는 생각(예: 평균 감염, 화재 등)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한 행동(예: 손 씻기, 확인하기, 숫자 세기 등)을 반복하게 되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에는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잘 다치거나 사고를 자주 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집 주변에 술 취한 사람이나 싸움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힌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너무 심하게 통제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신체에 해를 입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게는 속마음(고민)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예: 비명, 내 행동을 비난하는 누군가의 목소리 등)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누군가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8	지난 1개월간 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동네에서는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남의 돈을 뺏는 것과 같은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지난 1개월간 나는 재미있거나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1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사소한 잘못에도 참지 못하고 나를 심하게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22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3	본받고 싶은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주위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인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남들은 내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지난 1개월간 나는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①	②	③	④	⑤
27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자주 심하게 다투신다.	①	②	③	④	⑤
28	내 주변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지난 1개월간 나는 식욕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했다.	①	②	③	④	⑤
30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왕따나 따돌림 피해를 받은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2	윗사람이 뭐라 하면, 참지 않고 말다툼을 벌인다.	①	②	③	④	⑤
33	지난 1개월간 나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34	지난 1개월간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것 같아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5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행위(예: 추행, 강간 등)를 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말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지난 1개월간 나는 늘 긴장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9	물건이나 소지품 등을 잘 잃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40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하고야 만다.	①	②	③	④	⑤
41	지난 1개월간 나는 평소 쉽게 하던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42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3	지난 1개월간 나는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개월간 나는 _____ 						
44	음주 및 흡연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스마트폰의 과다사용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6	온라인 게임 및 도박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쇼핑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개월간 나는 _____ 						
48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몇 번 자살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회)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9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해 본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구체적으로 몇 번 자살을 계획해 보았습니까?	(회)				
50	자살을 시도해 본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몇 번 자살을 시도해 보았습니까?	(회)				
51	자살 의도 없이 스스로 내 몸에 상처를 낸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한 달에 평균 몇 번 상처를 내었던 것 같습니까?	① 월 1회- 4회	② 월 5회- 8회	③ 월 9회- 12회	④ 월 12회- 15회	⑤ 월 16회 이상
■ 확인 질문						
52	이 검사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3	이 검사의 결과 상담이 권유된다면, 상담을 받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부록 4. 현장 전문가 대상 은둔청소년 상담/개입 현황조사

현장 전문가 대상 은둔청소년 상담/개입 현황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청소년상담복지 현장 종사자 대상의 '은둔청소년 상담/개입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 결과는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개발에 활용됩니다.

이 설문에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인적사항 등은 자료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위해 파악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주신 선착순 200명, 무작위 추첨 5명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상황에 따라 설문을 조기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응답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며,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051-662-3132, 3136

구분	번호	문항
설문 동의	설문 동의	나는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합니다 1 네 -> 설문 진행 2 아니오 -> 설문 종료
은둔청 소년 경험 여부 확인	은둔 정의	은둔청소년은 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특별한 은둔의 계기가 없으면서 특정 기간 이상 방 또는 집에서 나가지 않거나 한정된 장소에서 제한적인 활동을 하며, 친구(가족 외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가 1명 이하인,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1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은 채 집(방) 등 한정된 장소에서만 머무르며 대인관계/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은둔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은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은 최소 얼마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 _____ 개월(텍스트 입력)
	2	은둔청소년의 정의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아시나요? 1 매우 잘 안다 2 잘 안다 3 조금 안다 4 잘 모른다 5 매우 모른다
	3	다음 중 은둔청소년 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모두 선택해주세요.(중복 선택 가능) 1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 2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3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한다 4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지만, 등교 일수 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등교를 한다 5 혼자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 6 (은둔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상담센터, 병원 등) 7.기타(서술: _____)
4	은둔청소년을 상담 및 개입한 경험 이 있나요? 1 과거에 한 적이 있다/현재 하고 있다 -> 4-1-1 로 이동 2 없다 -> 4-2 로 이동	
은둔청 소년 경험 내용	4-1-1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관 종사자가 은둔청소년을 상담/개입한 경험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상담/개입한 은둔청소년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귀하가 경험한 청소년의 상황 에 맞는 답변을 모두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상담/개입했거나 하고 있는 은둔청소년의 수 를 적어 주세

구분	번호	문항
		<p>요 -> 4-1-2 로 이동</p> <p>1 남자 약 _____명 2 여자 약 _____명</p>
	4-1-2	<p>상담/개입했거나 하고 있는 은둔청소년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중복 선택 가능) -> 4-1-3 로 이동</p> <p>1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 2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3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한다 4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지만, 등교 일수 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등교를 한다 5 혼자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 6 은둔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상담 센터, 병원 등) 7 기타(서술: _____)</p>
	4-1-3	<p>상담/개입했거나 하고 있는 은둔청소년 중에서 특이 상황이 있다면 간단하게 서술해주세요.(주관식) -> 5 로 이동</p> <p>※ 예: 은둔 생활을 하다가 용돈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대인관계 기술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기관 방문 은둔생활을 하다가 조금씩 안정이 되어 집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음</p>
은둔청소년 미경험 이유	4-2	<p>은둔청소년을 상담/개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23 로 이동</p> <p>1 소속기관에 은둔청소년이 접수되거나 소속기관에서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 2 소속기관에서 직급/전문성 등의 이유로 다른 상담자에게 은둔청소년을 배정하였다 3 개인적인 이유(직급/전문성 등)로 내가 은둔청소년 개입을 거부/고사하였다 4 기타(서술: _____)</p>
은둔청소년 현황	5	<p>은둔청소년이 은둔 생활을 하는 주요 계기는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주세요.(중복 선택 가능)</p> <p>1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서(다른 사람과 대화, 함께 활동 등) 2 학업 문제 때문에(성적 스트레스, 입시/진학 실패 등) 3 취업 문제 때문에(구직 실패, 실직 등) 4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학교폭력 등을 경험해서 5 가정문제로 인한 돌봄의 부재, 양육 태만으로(가족 간 갈등,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 등) 6 부모(보호자)의 양육태도로 인해(과잉통제/간섭, 과잉보호 등) 7 학교/사회생활이 어렵거나 무의미해서 8 인터넷/게임 등 더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9 기타(서술: _____)</p>
	6	<p>은둔청소년이 소속기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p>

구분	번호	문항
		<p>지 모두 선택해주세요.(중복 선택 가능)</p> <p>1 대인관계 기술 향상 -> 7 로 이동 2 복교, 검정고시 등 학업 지속 노력 -> 7 로 이동 3 취업 등 진로 준비 -> 7 로 이동 4 가족과의 갈등 해소 -> 7 로 이동 5 컴퓨터·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해소 -> 7 로 이동 6 학교폭력 피해 등 외상 경험 극복 -> 7 로 이동 7 심리·정신적인 어려움 해소(우울, 불안, 공황 등) -> 6-1 로 이동 8 생활습관 개선(규칙적인 시간에 기상, 수면 관리 등) -> 7 로 이동 9 기타(서술: _____) -> 7 로 이동</p>
은둔청 소년 정신 건강	6-1	<p>은둔청소년이 호소하는 주요한 정신건강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모두 선택 해주세요.(중복 선택 가능) -> 7 로 이동</p> <p>1 우울 2 불안 3 강박 4 공황/사회공포증 등 5 자살 및 자해(시도) 6 분노/충동성 7 흡연/음주/인터넷 등 과사용, 과의존 7 기타(서술: _____)</p>
은둔청 소년 현황 및 지원	7	<p>상담/개입했거나 하고 있는 은둔청소년이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지 모두 선택해주세요.(중복 선택 가능)</p> <p>1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2 부모님(양육자)이 청소년을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3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불안, 우울 등) 청소년이 (간 접) 목격한 경험 4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헤어져야 했던 경험(절교, 죽음, 부모의 이혼, 별거 등)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7 가까운 사람에게 학업, 취업 등 진로 문제로 압박, 강요를 받았던 경험 8 내가 원했던 대로 진학, 취업을 하지 못했던 경험 9 기타(서술: _____)</p>
	8	<p>상담/개입했거나 하고 있는 은둔청소년이 평소 집에 있을 때 어떤 생활을 하 는지 모두 선택해주세요.(중복 선택 가능)</p> <p>1 인터넷 사용(쇼핑, SNS, 채팅, 동영상 시청 등) 2 TV 시청 3 음악 듣기 4 책 읽기</p>

구분	번호	문항																																	
		5 온라인 게임 6 잠 7 실내 운동 8 학업/취업 등 진로를 위한 준비(검정고시 공부, 자격증 준비 등) 9 기타(서술: _____) 10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9	상담/개입했거나 하고 있는 은둔청소년이 PC나 모바일 기기 로 주로 하는 일을 모두 선택해주세요.(중복 선택 가능) 1 SNS나 채팅 등으로 누군가와 대화 2 온라인 게임 3 인터넷 서핑 4 동영상 보기 5 PC나 모바일 기기를 잘 사용하지 않음 6 기타(서술: _____)																																	
	10	상담/개입했거나 하고 있는 은둔청소년이 은둔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소속 기관에 최초로 접수되었을 때의 연령과 성별 은 무엇인가요?(중복 선택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문항</th> <th style="width: 33%;">은둔 시작</th> <th style="width: 33%;">기관에 최초 접수</th> </tr> </thead> <tbody> <tr> <td>초등학교 3학년 이하(10세)의 남성</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3학년 이하(10세)의 여성</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4-6학년(11~13세)의 남성</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4-6학년(11~13세)의 여성</td> <td></td> <td></td> </tr> <tr> <td>중학교(14~16세)의 남성</td> <td></td> <td></td> </tr> <tr> <td>중학교(14~16세)의 여성</td> <td></td> <td></td> </tr> <tr> <td>고등학교(17~19세)의 남성</td> <td></td> <td></td> </tr> <tr> <td>고등학교(17~19세)의 여성</td> <td></td> <td></td> </tr> <tr> <td>후기 청소년(20~24세)의 남성</td> <td></td> <td></td> </tr> <tr> <td>후기 청소년(20~24세)의 여성</td> <td></td> <td></td> </tr> </tbody> </table>	문항	은둔 시작	기관에 최초 접수	초등학교 3학년 이하(10세)의 남성			초등학교 3학년 이하(10세)의 여성			초등학교 4-6학년(11~13세)의 남성			초등학교 4-6학년(11~13세)의 여성			중학교(14~16세)의 남성			중학교(14~16세)의 여성			고등학교(17~19세)의 남성			고등학교(17~19세)의 여성			후기 청소년(20~24세)의 남성			후기 청소년(20~24세)의 여성		
문항	은둔 시작	기관에 최초 접수																																	
초등학교 3학년 이하(10세)의 남성																																			
초등학교 3학년 이하(10세)의 여성																																			
초등학교 4-6학년(11~13세)의 남성																																			
초등학교 4-6학년(11~13세)의 여성																																			
중학교(14~16세)의 남성																																			
중학교(14~16세)의 여성																																			
고등학교(17~19세)의 남성																																			
고등학교(17~19세)의 여성																																			
후기 청소년(20~24세)의 남성																																			
후기 청소년(20~24세)의 여성																																			
	11	어떤 은둔청소년은 은둔을 중단한 후에도 다시 은둔 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재은둔청소년을 상담/개입했거나 하고 있습니까? 1 재은둔청소년을 상담/개입했다(하고 있다) -> 11-1 로 이동 2 재은둔청소년을 상담/개입한 적이 없다 -> 12 로 이동																																	
재은둔 사유	11-1	재은둔청소년 상담/개입 경험이 있다면 해당 청소년이 재은둔을 하게 된 계기를 적어주세요.(주관식) -> 12 로 이동																																	
은둔청소년부모 현황	12	은둔청소년(부모/보호자)은 경우에 따라서는 은둔이 상당 기간 지속된 후에야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상담/개입했거나 하고 있는 은둔청소년이 은둔을 얼마나 지속하고 난 후에 소속기관에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까? (중복 선택 가능) ※ 소속기관에서 해당 청소년을 최초로 인지 혹은 접수, 발굴, 연계된 시점 기준																																	

구분	번호	문항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 1년 이상 ~ 3년 미만 4 3년 이상 ~ 5년 미만 5 5년 이상 ~ 7년 미만 6 7년 이상
	13	은둔청소년의 부모(보호자) 는 자녀/청소년의 은둔이 얼마나 지속되고 난 후 에야 자녀/청소년이 은둔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지 하였습니까?(중복 선택 가능)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 1년 이상 ~ 3년 미만 4 3년 이상 ~ 5년 미만 5 5년 이상 ~ 7년 미만 6 7년 이상
	13-1	은둔청소년의 부모(보호자) 가 자녀/청소년이 은둔청소년이라는 것을 뒤늦게 (1년 이상) 인지하였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주관식) ※ 예: 은둔형 외톨이가 무엇인지 몰랐다. 잠시 쉬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현병을 의심했다 등
	14	은둔청소년의 부모(보호자) 가 호소하는 어려움 은 무엇인지 각각의 문항에 대해 체크해주세요.(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자녀/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함 2 자녀/청소년을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됨 3 자녀/청소년을 돌보느라 개인적인 시간이 없음 4 자녀/청소년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없음 5 자녀/청소년을 돌보느라 경제적으로 힘들 6 해결할 방법이 없어/몰라서 힘들 7 자녀/청소년의 은둔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8 자녀/청소년의 불안/우울, 자살/자해(시도), 분노 등 정신 건강 악화의 두려움 9 자녀/청소년의 은둔으로 부부 갈등, 형제자매 간 갈등 등 가족 간 갈등 심화 10 자녀/청소년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잘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 11 다른 자녀/청소년도 은둔을 할까 두려움 </div>
	15	부모(보호자) 가 은둔청소년을 돕기 위해 어떤 노력 을 했는지 모두 선택해주세요(중복 선택 가능) 1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며 믿고 기다렸다/격려해 주었다 2 복교, 전학, 검정고시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권유했다 3 취업 및 직업훈련을 권유했다 4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게 권유했다 5 상담소 등 상담기관을 알아보았다 6 민간이나 공공 영역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7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 자문 등을 받았다

구분	번호	문항
		8 자조 모임에 참가하였다 9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하지 않았다/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10 기타(서술: _____)
은둔청 소년 지원	16	상담/개입했거나 하고 있는 은둔청소년은 소속기관에 어떻게 접수/발굴 되었 나요? 1 본인 이 기관으로 직접 신청 2 부모, 가족, 친인척 등 주변인 이 기관으로 신청 3 위클래스, 학교 에서 연계 4 지자체 (시군구청 사례관리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연계 5 기타(서술: _____)
	17	상담/개입했거나 하고 있는 은둔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중에서 효과적인 서비스 는 무엇인지 선택해주세요(3순위 까지 선택) 1 심리·마음건강 상담(불안, 우울 등) 2 학업 지속 지원(복교, 검정고시 등) 3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4 취업·진로 상담 및 교육(취업준비, 기술교육 등) 5 공동체 교류지원(동아리, 소모임, 자조집단 등) 6 건강검진 및 치료 7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8 문화·취미 지원(독서, 영화, 취미 등) 9 복지·생활 관련 안내 및 지원(생계급여, 수당 등) 10 기타(서술: _____) 11 기타(서술: _____)
	18	상담/개입했거나 하고 있는 은둔청소년과 만날 때 활용한 방법 중에서 효과 적인 방법 은 무엇인지 선택해주세요(2순위 까지 선택) 1 청소년이 기관을 방문 2 상담자가 청소년의 집으로 방문 3 청소년의 집이 아닌 카페, 공용 회의실 등 기타 다른 장소에서 만남 4 온라인 등 비대면 방법 5 기타(서술: _____) 6 기타(서술: _____)
	19	은둔청소년 상담/개입을 종결한 경험 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다수의 종결 경험이 있다면, 이 중에서 한 사례 를 염두에 두고 응답해주 시기 바랍니다. 1 은둔 관련 혹은 호소문제가 해결되어 종결 하였다 -> 19-1 로 이동 2 청소년 또는 부모(보호자)가 상담을 거부하여 종결 되었다 -> 19-2 로 이동 3 이직, 퇴사 등 상담자의 개인적 이유 로 종결되었다 -> 20 로 이동 4 청소년의 위기 수준, 희망 서비스를 고려 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였다 -> 19-2 로 이동

구분	번호	문항
		<p>5 나의 직급/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상담자/전문기관으로 연계하였다 -> 19-2 로 이동</p> <p>6 상담/개입 중으로 아직 종결을 한 적이 없다 -> 20 로 이동</p> <p>7 기타(서술: _____) -> 19-2 로 이동</p>
성공 비결	19-1	<p>앞에서 응답한 은둔청소년 상담/개입을 성공적으로 종결(은둔 관련 혹은 호소문제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주관식) -> 20 로 이동</p> <p>※ 예: 부모 교육/상담으로 부모의 이해가 향상되어 가족 갈등이 상당수 해소 되었음</p>
미성공 이유	19-2	<p>앞에서 응답한 은둔청소년 상담/개입을 계획대로 종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주관식) -> 20 로 이동</p> <p>※ 예: 부모의 요구로 상담이 시작되어 청소년의 상담 의욕이 높지 않았음. 소속기관에서 개입 가능한 사례인지 스크리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p>
	20	<p>상담/개입했거나 하고 있는 은둔청소년의 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중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는 무엇인지 선택해주세요(3순위까지 선택)</p> <p>1 은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2 자녀/청소년으로 인한 고민 등 개인 상담 3 부모와 자식 간 가족 상담 4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 집단상담 5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 자조 모임 6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정보 제공 7 기타(서술: _____) 8 기타(서술: _____)</p>
은둔청 소년 지원 및 연계 현황	21	<p>상담/개입했거나 하고 있는 은둔청소년을 어떤 기관/전문가와 연계 또는 협력했나요?(중복 선택 가능)</p> <p>1 지자체(시군구청 사례관리팀, 행정복지센터 등) 2 WEE클래스, 학교, 교육청 등 3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혹은 광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지역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혹은 광역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 병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6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전문 사설기관(예시: K2인터내셔널 코리아,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7 기타(서술: _____)</p>
	22	<p>해당 기관/전문가에게 연계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중복 선택 가능)</p> <p>1 청소년의 심리·정서 건강 수준을 고려하여 연계(심리검사 실시, 약물치료 병행 등) 2 청소년의 호소문제, 희망 서비스를 고려하여 연계(독서, 영화, 취미, 진로 등)</p>

구분	번호	문항
		3 청소년/부모(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연계 4 지자체, 상위기관, 전문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연계 5 기타(서술: _____)
발굴/연 계 노력	23	은둔청소년 발굴 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 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5개 까지 선택) 1 은둔청소년에 대한 정의 수립 및 국민 인식 개선 2 은둔청소년 지원 법령·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3 국가/지자체 중심의 은둔청소년 사례 관리 및 연계망 구축·운영 4 유관기관별 상담/개입하는 은둔청소년의 유형과 제공 서비스 등 역할과 책 임에 대한 기준 확립 5 은둔청소년 및 고위험군 청소년(상습 결석, 학교폭력 피해 등) 발견 시, 학 교, 청소년상담복지기관 등이 개입 및 연계하도록 강제성 및 권한 부여 6 학교, 청소년상담복지기관 등에 전문 인력 배치 및 예산 배정 7 학교 교사,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종사자 등 대상으로 은둔청소년 관련 교육 실시 8 은둔 (청소년) 전문기관 설치 9 은둔 (청소년) 전국 실태조사 및 국가 통계 관리 10 기타(서술: _____) 11 기타(서술: _____)
	24	은둔청소년 발굴 을 위해 기관 차원 에서 어떤 노력,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최대 5개 까지 선택) 1 은둔청소년 관련 사업 개발 및 홍보 2 지자체, 상위기관과 은둔청소년 발굴, 지원, 연계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3 지역 내 연계기관 발굴 및 협력 강화 4 은둔청소년의 발굴-지원-연계 등 개입 관련 기준 제시 5 은둔청소년 발굴/연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수립 및 관리 6 상담자 대상 은둔청소년 및 부모(보호자) 상담/개입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7 연계기관 정보,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 발굴/연계 관련 상담자 교육 실시 8 기타(서술: _____) 9 기타(서술: _____)
	25	은둔청소년 발굴 을 위해 상담자 차원 에서 어떤 노력,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최대 5개 까지 선택) 1 은둔청소년 관련 사업 개발 및 홍보 노력 2 소속기관 내 은둔청소년 발굴, 지원, 연계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3 연계기관 발굴 및 연계기관 실무자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4 은둔청소년에 대한 감수성 및 상담/개입 전문성 향상 5 연계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자 이해 6 은둔청소년 관련 법령 및 발굴/연계 행정 절차 숙지 7 은둔청소년 및 부모(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탐색 및 적합한 연계기관 발굴 노력

구분	번호	문항
		8 기타(서술: _____) 9 기타(서술: _____)
	26	<p>은둔청소년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5개까지 선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둔청소년에 대한 정의 수립 및 국민 인식 개선 2 은둔청소년 지원 법령·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3 국가/지자체 중심의 은둔청소년 사례 관리 및 연계망 구축·운영 4 유관기관별 상담/개입하는 은둔청소년의 유형과 제공 서비스 등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준 확립 5 은둔청소년 및 고위험군 청소년(상습 결석, 학교폭력 피해 등) 발견 시, 학교, 청소년상담복지기관 등이 개입 및 연계하도록 강제성 및 권한 부여 6 학교, 청소년상담복지기관 등에 전문 인력 배치 및 예산 배정 7 학교 교사,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종사자 등 대상으로 은둔청소년 관련 교육 실시 8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전문기관 설치 9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전국 실태조사 및 국가 통계 관리 10 기타(서술: _____) 11 기타(서술: _____)
	27	<p>은둔청소년 연계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어떤 노력,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5개까지 선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둔청소년 관련 사업 개발 및 홍보 2 지자체, 상위기관과 은둔청소년 발굴, 지원, 연계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3 지역 내 연계기관 발굴 및 협력 강화 4 은둔청소년의 발굴-지원-연계 등 개입 관련 기준 제시 5 은둔청소년 발굴/연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수립 및 관리 6 상담자 대상 은둔청소년 및 부모(보호자) 상담/개입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7 연계기관 정보,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 발굴/연계 관련 상담자 교육 실시 8 기타(서술: _____) 9 기타(서술: _____)
	28	<p>은둔청소년 연계를 위해 상담자 차원에서 어떤 노력,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각각 최대 5개까지 선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둔청소년 관련 사업 개발 및 홍보 노력 2 소속기관 내 은둔청소년 발굴, 지원, 연계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3 연계기관 발굴 및 연계기관 실무자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4 은둔청소년에 대한 감수성 및 상담/개입 전문성 향상 5 연계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자 이해 6 은둔청소년 관련 법령 및 발굴/연계 행정 절차 숙지 7 은둔청소년 및 부모(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탐색 및 적합한 연계기관 발굴 노력 8 기타(서술: _____)

구분	번호	문항
		9 기타(서술: _____)
	29	효과적인 은둔청소년 발굴 및 연계 에 관하여 추가 의견 이 있으면 작성해주세요(주관식)(선택 문항)
지원 노력	30	은둔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중복 선택 가능) 1 심리·마음건강 상담(불안, 우울 등) 2 학업 지속 지원(복교, 검정고시 등) 3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4 취업·진로 상담 및 교육(취업준비, 기술교육 등) 5 공동체 교류지원(동아리, 소모임, 자조집단 등) 6 건강검진 및 치료 7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8 문화·취미 지원(독서, 영화, 취미 등) 9 복지·생활 관련 안내 및 지원(생계급여, 수당, 치료비 지원 등) 10 기타(서술: _____)
	31	은둔청소년이 상담자와 만날 때 선호하는 방법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복 선택 가능) 1 청소년이 기관을 방문 2 상담자가 청소년의 집으로 방문 3 청소년의 집이 아닌 카페, 공용 회의실 등 기타 다른 장소에서 만남 4 온라인 등 비대면 방법 5 기타(서술: _____)
	32	은둔청소년은 누구와 함께 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 혼자 2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3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4 기타(서술: _____)
	33	은둔청소년의 부모(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중복 선택 가능) 1 은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2 자녀/청소년으로 인한 고민 등 개인 상담 3 부모와 자식 간 가족 상담 4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 집단상담 5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 자조 모임 6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정보 제공 7 기타(서술: _____)
	34	효과적인 은둔청소년 상담/개입 에 관하여 추가 의견 이 있으면 작성해주세요(주관식)(선택 문항)
인적 사항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구분	번호	문항
		1 남자 2 여자
	연령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경력	귀하의 청소년상담복지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현 소속기관 근무를 포함하여 전체 경력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1년 미만 2 1~3년 3 3~5년 4 5년~7년 5 10년 이상
	근무 지역	현재 근무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3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4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5 강원권 6 제주권
	소속 기관	현재 소속기관은 어디입니까?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 기타(서술: _____)
	직위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1 팀원, 부원, 상담원 등 실무자 2 청소년동반자 3 팀장, 부장 등의 중간 관리자 4 센터장, 소장 5 기타(서술: _____)
	정보 동의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히 응답해주신 분들 중 선착순 200명, 무작위 추첨 5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번호	문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하는 정보 :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경품 발송, 은둔청소년 관련 연구 참여 안내 ◆ 수집정보 보관기간 : 수집일로부터 2년간 </div> <p>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p> <p>1 동의 -> 설문 진행 2 동의하지 않음 -> 설문 종료</p>
연락처 수집	휴대전화	<p>모바일 상품권을 수령할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p> <p>: _____</p> <p>※ 휴대전화 번호 오기입, 문자 메시지 수신 차단으로 모바일 상품권 미수령 시에는 재발송이 어렵습니다.</p>
	FGI 동의	<p>귀하는 추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진행하는 「은둔청소년 발굴 및 연계개입 방안 연구」 와 관련하여 심층 인터뷰 등에 참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p> <p>※ 5월 ~ 6월 중 진행 예정</p> <p>1 네 2 아니오</p>
	종료	감사합니다

부록 5.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질문지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질문지

성별		① 남 ② 여
소속 직급	학교 밖 센터	① 팀원 ② 팀장 ③ 기타
	상담복지센터	① 동반자 ② 팀원 ③ 팀장 ④기타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상담경력		· 상담경력: 총 ()년 ()개월 · 은둔청소년 상담 사례 수: 총 ()사례

* 질문내용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질문내용
참여자 소개	1. 본인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은둔청소년 정의	2.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은둔청소년은 누구인가요? -발굴(의뢰)되는 은둔청소년 수준, 상태(은둔기간, 연령대 등)는 어떠한가요?
은둔청소년 발굴 현황	3. 은둔청소년의 발굴, 의뢰는 어떻게 되나요?(어려움 등) 4. 은둔청소년 발굴을 위해 기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은둔청소년 개입을 위해 센터에서는 척도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척도는 적합한가요?
은둔외톨이 청소년 개입 및 지원	5. 은둔청소년 개입 및 지원 사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지원내용, 종결 후 사후관리 방법, 어떤 기관과 협업, 부모상담, 효과적인 지원 등) 6. 은둔청소년의 종결은 어떻게 되나요? 종결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 무엇인가요? 7. 개입 및 지원 시, 센터 자체 종결이 효과적 이었나요? 혹은 연계까지가 도움이 되었나요? 성공 혹은 실패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8. 상담자 한명 당 개입 및 지원이 가능한 은둔청소년 내담자 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마무리 제언	9. 만약, 선생님의 기관이 은둔청소년 지원거점기관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요?(정책, 종사자 교육, 인식개선, 지역사회 연계모형 등) 10. 인터뷰를 마무리 하면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유관기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질문지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총 ()년 ()개월 · 은둔청소년 상담·개입 사례 수: 총 ()사례

* 질문내용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질문내용
참여자 소개	1. 본인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은둔청소년 정의	2.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은둔청소년은 누구인가요? -발굴(의뢰)되는 은둔청소년 수준, 상태(은둔기간, 연령대 등)는 어떠한가요?
은둔청소년 발굴 현황	3. 은둔청소년의 발굴, 의뢰는 어떻게 되나요?(어려움 등) 4. 은둔청소년 발굴을 위해 기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은둔청소년 개입 및 지원	5. 은둔청소년 개입 및 지원 사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지원내용, 종결 후 사후관리 방법, 어떤 기관과 협업, 부모상담, 효과적인 지원 등) 6. 은둔청소년의 종결은 어떻게 되나요? 종결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 무엇인가요? 7. 개입 및 지원 시, 센터 자체 종결이 효과적 이었나요? 혹은 연계까지가 도움이 되었나요? 성공 혹은 실패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8. 첨부한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마무리 제언	9. 인터뷰를 마무리 하면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creening tool for identifying reclusive adolescents and to determining the ways to detecting and supporting these individuals for professionals in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institutes.

First,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develop a scale for reclusive adolescents, from which the factor structure and preliminary items were derived. Feedback and evaluations from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were then gathered to refine the preliminary items. Subsequently, a survey encompassing both reclusive adolescents (with relevant experiences) and general adolescents was conducted.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scale exhibits appropriate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final scale consists of three sub-factors (social disconnection and isolation, avoidance, and irregular lifestyle) comprising 13 items. Participants rated these items on a five-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0 to 4 for each item). Cut-off scores for identifying reclusive adolescents were set at 11.5 for social disconnection and isolation, 13.5 for avoidance, and 5.5 for irregular lifestyle. An individual exceeding the cut-off scores in all three sub-factors was classified as a reclusive (high-risk) adolescent. Notably, the strength of this study is the development of a screening scale for professionals in adolescent counseling and welfare institutes, despite the current lack of clarity in the literature regarding the concept or characteristics of reclusive adolescents.

Subsequently, to identify effective strategies for detecting and supporting reclusive adolescents in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institutes, a factual survey was conducted with 240 adolescent counselors experienced in direct counseling interventions with reclusive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or in participating relevant projects. Additionally, to understand the existing support system for reclusive adolescents in the fiel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Participants included counselors from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and out-of-school adolescent support centers, as well as fourteen individuals from the public sector with experience involved in relevant projects. Firstly,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pattern of reclusion occurs as an accumulative result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experiences, and in the case of adolescents, they are often managed and protected within the public system, especially by 'school'. Therefore,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crucial for not overlooking any reclusive adolescents, should be achieved through close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with schools, education departments, and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institutes, which are the key institutions to detect reclusive (at-risk) adolescents. Secondly, a family-centered approach is imperative for the early detection and effective intervention of reclusive (at-risk) adolescents. Given the reluctance of reclusive adolescents to engage with the outside world, most counselors are constrained to direct interventions. Consequently, interventions with reclusive adolescents should commence with the family members rather than the adolescents themselves. Such family-focused interventions can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the direct beneficiaries, the family of reclusive adolescents, and can be an indirect yet high effective way to end reclusion. Thirdly, there is a crucial need to establish an organized system of community cooperation for the discovery and support of reclusive adolescents. Variations exist in the counseling and welfare services requir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reclusive adolescents, including the pattern of reclusion, degree of interpersonal isolation, reasons for reclusion, and negative experiences preceding reclusion. It is imperative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of reclusive adolescents and offer tailored counseling and welfare services to address their specific needs, facilitating their path towards a positive future. Indeed, experts in focus group interviews highlighted limitations in supporting and connecting with desired services as the primary reason for the failure to assist reclusive adolescents. Hence, providing timely and necessary counseling and welfare services to reclusive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is the core and the starting point of intervention for reclusive adolescents. Fourthly, a central organization should serve as the primary case management entity for reclusive adolescents. Establishing a rapport with case managers and counselors takes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contingent on the duration, degree, and type of reclusion. Long-term intervention is crucial even after forming positive relationships to effectively end the reclusion. Therefore, continuous follow-up and monitoring by case managers from the central organization are essential even after the cessation of reclusion to ensure timely support for reclusive adolescents who may otherwise retreat from society and potentially

repeat the cycle of reclusion. Fifthly,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wards enhancing the capacity and preventing burnout among on-site case managers and counselors who engage with reclusive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in the field. The role of youth counselors intervening directly with reclusive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is pivotal in assisting these youth to move beyond reclusion and reintegrate into society.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afford youth counselors detecting and supporting high-risk cases of reclusion with legal and ethical protections, including job security,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time and space to prevent psychological and physical burnout. Lastly, there is a need for improved awareness regarding reclusive adolescents, which can be addressed in two dimensions: preventive awareness and post-ac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along with the provision of reclusion-related projects. Preventive awareness focuses on the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of risk factors. Intensive management of risk factors, such as psychological trauma through early intervention on issues like bullying, schoo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is essential. Post-action awareness improvement includes efforts to mitigate blameful and oppressive social climates for reclusive adolescents, foster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reclusion,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necessary services for reclusive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In fact, there have been instances where families of reclusive youth concealed their family members' reclusion even from close relatives and acquaintances and were hurt by the negative perception of reclusive adolescents, rejecting intervention from specialized organizations. Given these findings,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including systematic research on the role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practical research on intervention methods tailored to the different types of reclusive adolescents.

* Keywords: Reclusive Adolescents, Early Intervention, Detection and Support Plan